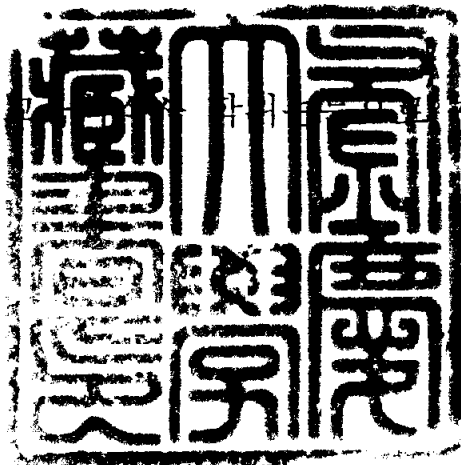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효과적인 고등학생 어휘지도를 위한
수능 기출 어휘분석 및
어휘학습/교수전략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매 란

이 논문을 지도교수인 박매란에게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상 우

이상우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6월 20일

주심 문학박사 윤희수



위원 언어학박사 안수웅



위원 영어교육학박사 박매란



목 차

Abstract	v
1.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과제	2
2. 이론적 배경	4
2.1 어휘의 중요성	5
2.2 문법과 어휘	9
2.3 독해와 어휘	10
2.4 기본 어휘 선정	11
2.5 기본 어휘 선정의 근거	14
2.6 어휘 학습 전략	15
3. 연구방법	23
3.1 연구대상	23
3.2 연구도구	24
3.3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25
3.4 자료분석 방법	26

4. 분석 결과 및 논의	28
4.1 수능 기출 어휘 분석 결과	28
4.2 설문조사 결과	45
4.3 논의	82
5. 결론 및 제언	89
참고문헌	93

부록

1. 수능 출제 어휘표	101
2. 수능 문제 빈출 어휘 순위표	109
3. 학생용 설문지	111
4. 교사용 설문지	113

표 목차

<표 1> 수능 어휘 순위 50위	29
<표 2> 수능 어휘 품사별 순위	31
<표 3> 듣기와 독해에 사용된 어휘 비교	33
<표 4> 글의 분위기 및 목적 관련어 빈도수	34
<표 5> 글의 태도 및 장르 관련어 빈도수	36
<표 6> 담화 연결어 유형별 빈도수 및 순위	38
<표 7> 수능 빈출 주요 부사 및 대의어	39
<표 8> 수능 빈출 주요 동사	41
<표 9> 수능 빈출 주요 형용사	42
<표 10> 수능 빈출 주요 명사	44
<표 11> 학습자가 현재 사용하는 발견 전략	46
<표 12> 학습자가 현재 사용하는 강화 전략	47
<표 13>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발견 전략	49
<표 14>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화 전략	50
<표 15> 현재 사용하는 발견 전략과 도움이 되는 정도의 비교	53
<표 16> 현재 사용하는 강화 전략과 도움이 되는 정도의 비교	54
<표 17> 남, 여학생간의 어휘 발견 전략 사용도 비교	56
<표 18> 남, 여학생간의 어휘 강화 전략 사용도 비교	58
<표 19> 남, 여학생간의 발견 전략 도움 정도 인식 비교	60
<표 20> 남, 여학생간의 강화 전략 도움 정도 인식 비교	61
<표 21> 교수 발견 전략	63
<표 22> 교수 강화 전략	64

<표 23> 교사 기대 발견 전략	66
<표 24> 교사 기대 강화 전략	67
<표 25> 학생과 교사간의 발견 전략 사용도 및 도움 인식 비교	69
<표 26> 학생과 교사간의 강화 전략 사용도 및 도움 인식 비교	70
<표 27>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 지역간의 발견전략 사용 비교	73
<표 28>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 지역간의 강화전략 사용 비교	74
<표 29>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 지역간의 발견 전략 도움 인식 비교 ...	75
<표 30>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 지역간의 강화 전략 도움 인식 비교 ...	76
<표 31>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발견 전략 사용도 비교	78
<표 32>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강화 전략 사용도 비교	79
<표 33>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간의 발견전략 사용도 비교	81
<표 34>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간의 강화전략 사용도 비교	81

Corpus Analysis and Questionnaire Surveys for Effective Vocabulary Learning & Teaching Strategies in High School English

Sang-woo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ree-fold: firstly to examine what the primary vocabulary items for high school students are; secondly to investigate effective discovery and consolidation strategies for students and teachers; and lastly to suggest effective strategies to teach vocabulary.

For this, the English materials from the previous ten-year'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AST) were compiled and analyzed. In addition, 500 student questionnaires and 50 English teacher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to ascertain the effective 'discovery and consolidation' for both groups.

This research made several discoveries. Firstly, the percentage of vocabulary items in the 7th National Basic Curriculum word list - which had been used in CAST English materials was 58.5% and the total English vocabulary suggested 3,102 words.

Secondly, while the students in the survey were found to use 'bilingual dictionaries' and 'repetition strategies' most often, they responded that 'vocabulary learning through context' and 'periodical repetitions' are the most effective strategies. In contrast, the most widely used strategies by teachers were those of 'using contextual clues' and 'synonym/antonym teaching'.

Thirdly, female students were found to use more physical and delicate strategies than male students.

Fourthly, various comparisons were attempted with a number of previous research results to see if there is any significant difference. Middle school students used 'memorization strategies' most often, while high school students were found to use various 'metacognitive strategies'. The current research findings were then compared with the result of a previous study on the students in the Seoul region, which seemed to suggest more metacognitive strategy use than the students in the Busan and Ulsan areas. The results from Korean group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 Japanese grou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Lastly, this research found that teaching vocabulary can be more effective through the use of various strategies, such as English media usage, monolingual dictionary usage, dialogue with foreigners and mind map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어교육에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면서 영어교육에 의사소통(communication) 중심 교수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의사소통 중심으로 교육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이전에는 독립된 영역으로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던 어휘를 독립된 한 영역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보다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하고 지도하기 위한 전략 및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Brown, 1993, 1995; Judd, 1983; Krashen, 1989; Nation, 1990; Read, 2000; Rivers, 1983; Schmitt, 1997, 2000; Taylor, 1990; Vygotsky, 1978, 1986; Wilkins, 1972)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법이 도입되었고, 문법위주의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1994년부터 외국어 영역 영어시험도 듣기, 독해위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통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현실을 보면, 효과적인 어휘학습을 위한 지도방법 및 연구가 너무나 빈약하고, 단계별 어휘학습 지도방법 및 학습전략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

Schmitt(1997)와 같은 저명한 언어학자들에 의해 일본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화자(1996), 박준언(2001), 전인재(2001), 황영금(2002)의 연구로 어휘학습 지도방법 및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나, 고등학생들만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등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어휘학습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994년에 시작되어 2003년까지 시행된 10년간의 수능 기출 어휘분석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핵심적인 어휘들과 효과적인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휘교수를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어휘교수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이 고등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사들의 어휘학습과 어휘교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위원들에게도 보다 균형 있고, 발전된 수능시험출제를 위한 자료로서, 수능 영어 시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2 연구과제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과제 1. 수능 기출 어휘분석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10년간의 수능 기출 어휘를 분석한다.

연구과제 2. 학생 및 교사 설문조사 분석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의 어휘학습 및 어휘 교수전략을 분석하고, 박준언(2001), 황영금(2002), Schmitt(1997) 연구와 비교분석한다.

연구과제 3. 효율적인 어휘학습 및 교수 전략 제시

학생 및 교사의 어휘 학습 및 교수 전략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어휘학습 및 교수 전략을 제시해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논문의 서론 부분으로 논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어휘지도 방법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어휘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어휘와 문법, 어휘와 독해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휘학습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어휘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수능 기출 어휘에 대해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고, 효율적으로 어휘를 학습하고 지도할 수 있는 어휘학습 및 교수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을 통한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고 영어교육의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어휘지도 방법의 흐름 및 어휘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문법과 어휘, 독해와 어휘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기본 어휘 선정의 근거를 알아보고,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어교수 방법상에서 어휘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세기 초반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는 일차적인 목표를 품사의 구별, 어형변화에 두었다. 그 후에 대두된 독서 접근법에서는 목표를 외국어로 된 학습내용의 이해를 위한 수동어휘만을 강조한 결과 학습자는 학습한 어휘를 의사소통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40년대 초반에 청화식 교수법이 미국에서 대두되었는데 이 교수법에서는 음운 및 문법 패턴의 습관형성을 위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다(Rivers, 1964, p. 17). 그러나 Wilkins(1972)가 개념 및 기능 교수요목을 주장하면서 청화식 교수법에서의 어휘지도에 대한 경시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청각 구두식 교수법의 반동으로 생겨난 “인지 접근법”(The Cognitive Approach)에서는 언어학습을 습관형성이 아니라 규칙의 습득으로 간주하였고, 중·고급 단계에서 특히 어휘교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 교육과정의 바탕이 되는 이해중심 교수법 중에서 “자연 교수법(The Natural Approach)”에 따르면 교사의 할 일은 학습자들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며, 이것이 최선의 어휘 지도방법이라고 Krashen(1983, p. 155)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Vocabulary is basic to communication. Vocabulary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acquisition process. The popular belief is that one uses form and grammar to understand meaning. The truth is probably closer to the opposite: we acquire morphology and syntax because we understand the meaning of utterances. Acquisition depends crucially on the input being comprehensible. And comprehensibility is dependent directly on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meaning of key elements in the utterance. Thus, acquisition will not take place without comprehension of vocabulary.

2.1 어휘의 중요성

우리나라 영어과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주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 배양의 핵심은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어휘 지식이기 때문이다. 어휘를 나열하기만 해도 생존 수준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경우가 많은 반면 어휘 지식이 없으면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영자신문이나 다양한 독해지문을 읽거나, 원어로 된 영화나 TV 방송을 청취할 때, 혹은 외국인과 만나 대화할 때, 필요한 어휘를 알지 못하면 의사소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휘의 중요성은 보다 체계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Canale 과 Swain(1980)은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로 문법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 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의 네 가

자를 거론하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 범주인 문법 능력을 “어휘 및 형태소, 통사론, 문장 단위의 의미론, 음운론 규칙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lexical items and of rules of morphology, syntax, sentence grammar, semantics, and phonology)”을 포함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anale과 Swain(1980) 이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Bachman(1990) 역시 어휘를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의사소통 능력을 먼저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과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분류하고, 전자는 다시 조직 능력(organizational competence)과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으로 나누었다. 어휘는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 철자법 등과 함께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의 구성 요소가 되고, 이 문법적 능력은 맥락적 능력(textual competence)과 함께 조직 능력의 하위 범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Bachman(1990)의 모델은 Canale과 Swain(1980)의 그것에 비해 더 다원적 구조를 갖기는 하지만 어휘를 그 구성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처럼 중요성이 널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분야에서 어휘는 오랜 세월 동안 구조와 기능의 그늘에 가려 도외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문법 구조와 여러 가지 기능적 표현을 제대로 알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명하다. 문법적 지식이 있으면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기능적 표현을 알고 있으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 가령 길 묻기, 물건 사기, 전화 걸기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휘 지식은 이들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법 지식이나 기능적 표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의사소통이 힘들어지고, 어휘 지식이 없으면 의

사소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제 2언어 학습자와 교사로 구성된 특정 집단을 상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문법책인가, 사전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사전이라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례(Taylor, 1990)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Wilkins(1972)는 “문법이 없이는 약간의 의미가 전달되지만 어휘가 없이는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다. Rivers(1981, p. 462)도 “어휘 없이는 언어 학습이 불가능하다”면서 어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충분한 어휘력이 없으면 이미 습득한 구조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Rivers, 1983, p. 125). 게다가, 외국어의 다른 측면, 특히 발음의 경우와 달리 어휘는 나이가 든다고 하여 그 습득이 더디어지는 것도 아니다. Rivers에 의하면 학습자는 성숙할수록 더욱 용이하게 어휘를 늘려 가는데, 그 까닭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처음 배우는 10개 어휘가 가장 힘들고, 어휘가 늘어갈수록 새로운 어휘를 첨가하기가 쉬워진다고 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어휘 학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그 이유에 대해 Seal(1988, pp. 79-81)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가 문법 교수로도 바꿀 수 없는 미리 정해진 나뭇의 내부적 문법을 갖고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전통적 문법 구조 교수를 과거보다 덜 강조하게 되었다. 둘째, 외국어 교수·학습이 언어의 형식적 학습보다 언어의 사용을 강조하는 의사 소통적 방법론으로 전환되었다. 언어 교수의 목적은 학습자에게 의사 소통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었고,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의 어휘를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학문적 목적의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교수에서 교사들은 비영어민 화자인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L2어휘의 수가 적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Krakowian(1984)과 Ludwig(1984)도 의사소통중심의 교수에 있어서 발음이나 통사적인 구조보다 어휘학습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In communication-oriented teaching the most pressing concern for the learner is the need to master an adequate foreign-language vocabulary: the learning of syntax or pronunciation is, on the whole, comparatively less important in developing the ability to successfully interact in the target language(Krakowian, 1984, p. 26).

Native speakers find errors in vocabulary more irritating than most other errors because they defeat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which is, of course, to get the meaning across(Ludwig, 1984, p. 552).

최근의 주된 교수법 역시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 소통적 교수법 혹은 자연적 교수법과 같은 이해 중심 교수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제 2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문법보다 어휘의 효용 가치가 더욱 높으며, 문법을 모르더라도 일정한 어휘력을 갖추고 있으면 의미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Krashen(1989)은 “학습자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생기는 문제는 부적절한 어휘 지식에서 생기며, 외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휘를 학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를 구성하는 것 또한 이들 단어들이며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가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예측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Krashen, 1989)고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사론에 있어 현대적 연구의 대부인 Chomsky도 최근 그의 최소주의 언어적 이론(Minimalist Linguistic theory)에서 어휘가 최고 중요하다

(“lexicon-is-prime”)라는 입장을 채택했다(Richards & Rodgers, 2001, p. 132에서 재인용).

2.2 문법과 어휘

문법이 한 언어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휘는 그 언어를 완성시키는 살과 내장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이수연, 2000). 문법규칙을 잘 알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외국어로 의사소통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외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있어 어휘 지식은 문법 지식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외국어 화자들에게 의사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그들의 발화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영어의 모국어 화자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흔히 문법적으로 결함이 있는 문장을 말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말하지 못하고 단어만을 말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의사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I saw him yesterday.”라는 문장 대신 문법적으로 시제가 틀린 “I see him yesterday.”라는 문장을 말한다 하더라도 영어의 모국어 화자들은 ‘yesterday’라는 단어로 미루어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고 할 때 “I’d like to buy a bottle of milk.”라는 문법적으로 정확하며 완전한 문장을 사용하는 대신에 ‘milk’ 라고만 하더라도 점원은 화자의 말을 이해하는데 있어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의사전달에 있어 어휘의 지식은 문법보다 더 중요하

다고 할 수 있으며 영어 학습자들에게 영어의 어휘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길을 찾는 것은 영어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어떤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사들은 어휘 지도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3 독해와 어휘

박해순(1995)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독해의 장애요인으로 학생들의 71.1%가 어휘력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EFL상황에서는 글을 읽을 때 어휘력이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어휘력 신장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어휘력은 독해능력 뿐 아니라 영어의 의사소통능력에도 다른 언어적 요인인 발음, 문법, 유창성(fluency), 사회 언어적 요인 등보다도 월등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Higgs & Clifford, 1982).

또한 이수연(2000)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에게 어휘를 지도하는 것이 다음 중 어느 기능의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설문에서 읽기라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64%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말하기(30%), 듣기(20%), 쓰기(2%)의 차례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사실은 영어 어휘를 잘 지도할 경우 영어 읽기 능력의 향상은 물론 말하기 능력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영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비중 있게 지도해야 할 것은 무엇

인가에 대해 물었는데 어휘라고 대답한 교사가 64%로 나타났고 독해(30%), 발음(4%), 문법(2%)의 순서를 보였다. 어휘에 대한 이해가 영어 사용능력의 기초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어휘가 읽기의 선행 조건인 동시에 결과임을 밝힌바 있다(Bialystock, 1987). 따라서 통사, 음성학, 배경지식은 물론 어휘 지식이 읽기뿐만 아니라 언어의 유창성을 위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Kruse, 1979). 결국 이들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은 별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학습자의 어휘 및 읽기 능력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기본어휘 선정

어휘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는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해 비롯되었다. Ogden(1930/1968)은 EFL 학습자들에게 최소한의 어휘를 제시할 목적으로 850개의 기본어휘를 선정하였다. 이 경우 기본 어휘란 기본적인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고 배우기 쉬우며 복잡한 개념을 표현하는데 활용될 수가 있는 어휘들이다.

그밖에 Thorndike와 Lodge(1944), West(1953)에 의해 개발된 어휘 목록도 기본 어휘를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2,000어휘로 구성된 West의 어휘 목록은 롱맨사전(1990)의 바탕이 되었다. 이후 발표된 어휘 목록들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약 4,500어휘로 이루어진 캠브릿지 영어사전(1980)과 롱맨 현대영어사전 3판(1981)이다. 기본 어휘에 관한 관심은 그 후에도 지속되어 최근의 롱맨 현대영어사전 3판(1995)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구어 및 문어 어휘가 각각 3,000개씩 표시되어 있다.

기본 어휘의 선정은 어휘 학습에 관한 관심의 표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어휘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 통제의 경향은 문법, 구문을 강조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편승하여 어휘 학습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1970년까지는 문법, 구문을 익히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어휘를 기본 어휘로 간주하고 교육 현장에서 그 습득을 권장하는 실정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 의미, 기능 중심의 교수 요목이 거론되면서 어휘를 극도로 통제하고, 어휘 학습을 경시하던 전통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어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Wilkins(1972)는 “문법 지식 없이 어휘만 습득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어휘를 익히지 않고 구문만 익히는 것도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70년대 초에 이렇게 고조되기 시작한 어휘에 대한 관심이, 70년대 중반에는 어떻게 어휘를 학습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휘 학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대두되지 않았던 70년대 초까지는 읽기가 어휘 학습에 기여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70년대 중반에는 어휘 학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가령, Donley(1974)는 어휘의 내적 구조, 즉 의미의 관련 구조 및 소리의 관련구조(예, wine/whine)를 파악함으로써 어휘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따라서 어휘는 문맥 속에서, 그리고 관련 어휘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익혀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밖에도 Vygotsky(1978, 1986), Lord(1974) 등의 연구는 어휘에 관한 관심이 초기의 어휘 통제로부터 의미 습득, 어휘 습득으로 전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로 70년대 말에는 어휘 연구가 보다 본격화되었다. 언어 교육에 있어 어휘 교육의 비중이 높아져 그 위상이 정립되었고, 독자적인 어휘 교육이 시도되었으며, 학습자 중심의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어휘 통제와 전통은 희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어휘 통제와 명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어휘 학습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다른 한편으로 기본 어휘에 대한 관심도 그 정도가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EFL 상황에서는 어휘통제가 불가피한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수업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수업 시간 이외에는 영어에 노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EFL 상황에서, 영어를 구성하는 수많은 어휘 가운데 비교적 작은 수의 유용한 어휘를 선정하여 가르치는 것은 당위성을 갖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어휘 통제와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제 7차 영어과 교육 과정은 학년/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 초등학교를 제외한 7~10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수는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1, p. 36).

- 7(7-a, 7-b) 단계: 200 낱말 내외
- 8(8-a, 8-b) 단계: 250 낱말 내외
- 9(9-a, 9-b) 단계: 350 낱말 내외
- 10(10-a, 10-b) 단계: 450 낱말 내외

(전체 1,250 낱말 내외, 초등학교 30 낱말, 외래어 포함하여 50 낱말의 상용 외래어 사용 허용)

10단계까지 사용해야 할 어휘 수는 초등학교 450낱말을 포함해서 1,700 낱말 정도이다. 또 학습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늘 접하여 익숙해진 상용 외래어는 50개까지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 외국어 학습에서 어휘를 통제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너무 많은 서로 다른 형태의 낱말로 인한 부담감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어 습득을 쉽게 해 주려는 의도에서인데, 교재 개

발이나 학습 진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우리나라 영어과 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 선정에서도 빈도, 분포 범위, 학습 용이도, 학습자의 필요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조건들과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 표들을 참조하여 ‘기본 어휘표’가 작성되었으며, 이 기본 어휘 표에는 모두 2,067개의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2.5 기본 어휘 선정의 근거

우리나라 제 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 과정의 기본 어휘 선정에서는 빈도, 분포 범위, 학습 용이도, 학습자의 필요 등을 고려하였다(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 빈도(frequency)

기본 어휘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빈도라고 할 수 있다. 빈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어휘 습득을 용이하게 해 주는 첫 번째 요인으로, 학습자가 얼마나 이들을 자주 접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West(1960)는 빈도가 높은 2,000개의 어휘 가운데 1,200개를 골라 학습자들에게 ‘최소한의 적정 어휘’로 제시하면서, 이 어휘들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West(1960)의 목록처럼 빈도수에 입각한 목록들은, 학습자들이 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어휘들을 가르치는 어휘 지도의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세계 어느 언어든지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그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어휘이며, 의사 소통을 위한 기본 자질을 갖추는데 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분포범위(range)

분포 범위는 어휘가 사용되는 문맥이 얼마나 다양한가, 혹은 제한적인가를 일컫는 개념이다. 기본 어휘를 선정할 때는 빈도뿐만 아니라 분포 범위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유용한 어휘는 빈도가 높으면서 분포 범위도 넓은 어휘, 즉 다양한 구어 또는 문어 자료에 사용되는 어휘이다.

3) 학습 용이도(learnability)

학습 용이도란 학습하기에 얼마나 쉬우며 친숙한 어휘인지 하는 문제이다. 빈도가 높은 어휘가 모든 텍스트에서 정적으로 출현하여 학습자가 쉽게 흡수하고 배울 수 있으므로 빈도의 개념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어휘들은 다양한 다른 이유로 인해 쉬워지거나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어휘의 철자가 어렵거나 어휘의 의미가 모국어의 문화나 경험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휘의 통사적 자질 등이 습득을 어렵게 한다거나 하는 등이다.

4) 학습자의 필요(learner's Needs)

학습자들의 환경이나 배경, 목표 등과 더불어 학습자가 사용해야 할 어휘의 선정과 관련된다. 학습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2.6 어휘 학습 전략

외국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다양한 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Rubin, 1975; Stern,

1975). 아울러, 학습 전략이 외국어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증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며(Politzer & McGroarty, 1985), 학습 전략을 훈련시켜 외국어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어휘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어휘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Chamot, 1987). 본 장에서는 어휘 학습 전략의 효과와 어휘 학습 전략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6.1 어휘 학습 전략의 효과

어휘 학습 전략에 관한 관심은 1970년대 중반의 외국어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휘가 외국어 학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어휘 학습 전략에 관한 초기의 연구는 일반적인 외국어 학습 전략 중 일부로 어휘와 관련된 전략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농후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어휘와 관련된 학습 전략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아졌다.

대부분의 초기 연구는 어휘 성취도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확인하는데 치중하였다. 가령, Cohen과 Aphaek(1980)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랐던 새 단어를 암기하려고 노력하며, 어휘의 의미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들이 어휘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Ahmed(1989)는 수단(Sudan) 학생들이 어휘 학습에 사용하는 전략을 조사하여 성공적인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를 구별짓는 어휘 전략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가령, 어휘 기록장을 활용하거나 책의 여백에 기록하는 전략은 성공적인 학습자의 특징에 해당하였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학습자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문맥을 통해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

며, 성공적이지 못한 학습자들은 어휘 학습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새 어휘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또는 새 어휘를 선행 지식에 어떻게 연결짓는가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Sanaoui(1995)에 의해서도 발견되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학습 활동에 스스로 몰두하면서 자신의 어휘 학습을 이루어가며 목표 어휘를 복습하고 사용하는 학습자들과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이 있다.

전략 사용이 효과적이라면 전략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학습자의 외국어 숙달도, 과업, 배경 지식, 성격, 학습 경험, 성별 등이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mot & Rubin, 1994). 가령, 어휘 목록표는 낮은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하지만 보다 높은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문맥을 통한 어휘 학습이 훨씬 효과적이다(Cohen & Aphek, 1980). 이 방면의 연구는 전략 훈련을 통해 성취도를 높이려는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누구에게 어떤 어휘 전략을 훈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려면 각 학습자 및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별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2.6.2 어휘 학습 전략의 분류

학습 전략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어휘와 관련된 전략은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였다. 따라서, 어휘 학습 전략 분류 체계가 부족하였고(Skehan, 1989), 이는 어휘 학습 전략이 별도의 관심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부분의 어휘 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는 효과적인 전략을 확인하는데 급급하였으며, 어휘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는 미흡하

였다. 최근 Schmitt(1997)는 일본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어 어휘 학습 전략을 분류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는 다양한 자료와 실험 및 관찰을 통해 어휘 전략을 분류하였고, 총 58개의 전략을 설정하였다. Schmitt(1997)는 어휘 전략을 크게 발견 전략과 강화 전략으로 나누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견 전략(discovery strategies)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으로 독자적인 의미 결정 전략과 Oxford(1990)의 사회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자가 단어의 뜻을 유추하거나 자신의 모든 언어적 지식을 동원하여 알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아 뜻을 알 수도 있다.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결정 전략과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는 사회적 전략을 단어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할 때 발견 전략이라고 불렀다.

1) 결정 전략(determination strategies)

독자적인 의미 결정 전략이란 학습자가 단어를 모를 때 언어의 구조적 지식이나, 모국어와 같은 어원의 어휘를 유추하거나, 문맥을 통한 추측, 참고 자료의 사용 등을 통해 의미를 짐작하는 전략에 해당된다. 학습자가 새 단어의 품사를 알 수 있다면 의미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근이나 접사를 통해 의미에 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Clarke와 Nation(1980)은 품사의 분석은 잘못된 의미 결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전략은 문맥을 통해 새 단어의 의미를 추측할 때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동족 어휘(cognates)는 서로 다른 언어에서 공통된 어원을 가지는 단어이다. 한 나라의 언어는 다른 나라에서 빌려 온 단어가 많고, 이러한 차용어는 종종 형태와 의미에서 서로 유사성이 남아 있다. 만

약 목표 언어가 학습자의 모국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동족 어휘는 의미를 추측하고, 새 단어를 기억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문맥에서 새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발견 전략보다 의사 소통 접근 방법과 함께 지난 20년 동안 매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림을 사용하는 전략도 학습자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동원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vin, 1983; Paivio, 1983). 교재의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측하는 것은 새 어휘를 습득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다. 즉, 이 전략을 사용하려면 학습자는 상당한 수준의 언어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문맥 자체에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

사회적 전략은 새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는 전략이다. 학습자는 교사 또는 친구에게 물어 볼 수 있는데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가장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 즉 모국어로 번역해 주기, 동의어 알려주기, 다른 말로 바꾸어 정의 제시하기, 문장 내에서 새 단어 사용하기,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결합하여 가르쳐 주기 등이 가능하다. 모국어 번역은 학생들에게 빠르고 쉽게 이해되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모국어 지식이 목표어로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고, 단점은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알아야 하고 대부분의 번역어는 정확한 동의어가 없어서 뜻이 잘못 전달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화 전략(consolidation strategies)

강화 전략이란 새롭게 뜻을 알게 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한 전략이며, 여기

에는 사회적 전략, 기억 전략, 인지적 전략, 상위 인지적 전략이 포함된다.

1) 사회적 전략

Nation(1977)은 사회적 전략이 흔히 새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확인하는 행동을 지칭하지만, 새로 학습한 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여 연습하는 행동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Dansereau(1988)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 협력을 통한 학습은 참가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교실 밖에서도 학습자가 팀 활동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며, 교사의 방해로 덜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조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해 준다.

입력이 언어 습득에 가장 중요한 요소(Krashen, 1982)라면, 원어민과 의사 소통하는 것이 어휘 습득의 가장 훌륭한 방법일 수 있다. Milton과 Meara(1995)는 영국 대학에 등록된 비 원어민 그룹, 즉 많은 원어민과 상호 의사 소통한다고 추정되는 학습자들이 6개월만에 1,325개의 단어를 익혔는데 원어민과 직접적 교류가 없었던 본국의 학생들은 같은 기간에 평균 275개의 단어만 터득하였다고 밝혔다. 즉, 사회적 전략을 통한 어휘 학습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기억 전략(memory strategies)

기억 전략은 이미 전통적으로 좋은 기억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기억 전략에는 새 단어를 선행 학습된 지식과 관련짓고, 심상(imagery)의 형태를 사용하거나, 어군(grouping)을 활용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그림 또는 심상을 활용하는 전략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서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새 단어를 익히는 데 단어의 정의 대신에 뜻을 나타낸 그림을 사용하는 전략으로서 학습자는 단어의 의미를 스스로 자신의 심상으로 만

들어 암기한다. 심상을 활용하면 단순한 반복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외국어의 어휘를 학습할 수 있으며(Steingart & Glock, 1979), 심지어는 문장의 문맥 속에서 어휘를 학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Saltz & Donnenwerth-Nolan, 1981)

한편, 학습자는 새 단어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목표 언어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대개 동의어나 반의어와 같은 의미 관계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때때로 학습자는 기억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미상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어들을 함께 연관짓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운율을 반복함으로써 단어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목표 언어와 연상시킨다. 모국어에서 이런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는 기계적 암기를 한 학습자보다 1주일과 5주일이 지난 후의 실험에서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하였고 외국어 학습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한 학습자가 2배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ivio & Desrochers, 1981).

3) 인지적 전략(cognitive strategies)

인지적 전략은 기억 전략과 유사하지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정신적 과정과 의미 있는 정보 처리에 초점을 맞춘다. 인지적 전략은 글로 쓰거나 말을 하는 반복, 즉 반복적으로 계속 쓰거나 말하는 행동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전략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전략이다. 인지적 전략은 매우 확고한 방법으로 학생들은 인지적 전략을 다른 전략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한다(O'Malley & Chamot, 1990). 어휘 표는 단어에 처음 노출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복습하기 위해서도 계속 사용한다. 인지적 전략의 또 다른 종류는 학습 보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기록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새로 배운 단어를 자신의 고유 구조로 만들고, 복습하는 동안 부차적인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은

목표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 교재에서 어휘 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4) 상위 인지적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상위 인지적 전략은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학습 과정의 복습을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광범위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에 관련되어 있다. 효과적으로 목표 언어를 획득하기 위해 목표 언어에 대한 노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원어민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전체 단어 중 일부분을 알 수 있을 뿐이다(Goulden, Nation & Read, 1990). 외국어 학습자가 모든 단어를 다 학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가장 유용한 단어들을 학습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은 매우 빈도 수가 낮은 단어들은 무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빈도 수가 낮고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를 배제하고 학습하는 전략은 학습 목표가 어휘력 신장보다는 독해 속도의 향상에 있을 때는 특히 중요하다(Mikulecky, 1990)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휘 학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어떤 영역보다도 중요하다. 어휘 학습 전략은 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많은 성공한 학습자들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어휘 전략을 훈련시키는 것이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chmitt(1997)의 어휘전략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발견 전략과 새롭게 뜻을 알게 된 어휘를 암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화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음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논문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자료분석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연구대상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0년간의 수능 기출 어휘자료

1994년(총 2회)부터 2003년까지 사용된 10년간 11회분의 기출 문제.

2)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부산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2학년 183명, 여자 고등학교 2학년 221명과 울산 S고 2학년 남학생 96명을 포함한 전체 500명이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는 부산 시내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영어교사 34명과 울산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영어교사 16명으로, 총 50명의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참여하였다.

3) 박준언(2001), 황영금(2002), Schmitt(1997) 연구와의 비교

본 논문 어휘분석 자료들과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준언(2001),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영금(2002), 일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chmitt(1997) 연구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3.2 연구도구

논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1) 수능 기출 어휘분석 도구

수능 기출 어휘분석을 위해 Access DB, Visual Basic, Split 함수, SQL 중 Group by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어휘의 빈도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들이다.

2) 학생용 설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학생용 설문지는 어휘 학습 전략의 분류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Schmitt(1997)의 어휘 학습 전략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한국 고등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본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외국어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 20명을 상대로 예비 실험을 한 결과 충분한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설문지는 학습자가 모르는 영어 단어의 뜻을 처음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발견전략 12문항과, 뜻을 알게 된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화전략 26문항으로 모두 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각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실제 어휘 학습시 사용하는 방법을 5 단계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 1~5 중에서 5는 '매우 그렇다', 4는 '조금 그렇다', 3은 '보통이다', 2는 '별로 그렇지 않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분하였다. 자신의 학습 방법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않지만 만일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5 단계로 나누어 측정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다.

3) 교사용 설문지

교사용 설문지는 학생용과 같은 어휘 전략 항목을 교사의 입장에서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는 학생용 설문지와 같은 항목의 전략을 교사의 지도 전략으로 만들었다. 교사가 모르는 단어의 뜻을 처음 지도하기 위해 실제 사용하는 발견전략 12문항과 그 전략이 교사의 실제 지도하는 방법과 관계없이 어휘를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화전략 정도에 대해 26문항을 5단계(학생용과 같음)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능 기출 어휘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수능 자료들을 입수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및 수능 기출 문제집을 참고하여 1994년에서 2003년까지 10년간 출제된 전체 11회분을 컴퓨터 자료로 입력하였다. 자료들 중에서 한글 부분은 다 제거한 후 순수 영어로 된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듣기·말하기와 읽기·쓰기에 쓰인 어휘들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1번에서 17까지의 문항과 18에서 50번까지의 문항을 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설문조사는 2002년 12월에서 2003년 2월까지 울산과 부산에 재학중인 5개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 500명 및 9개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부산 및 울산에 근무중인 다섯 명의 현직 교사들의 도움

을 받아 수업 시간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응답자들에게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본 설문지가 연구자의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하기를 요청하였다. 근본적으로 옳거나 틀린 답은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이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다는 등의 가상적인 반응이 아닌 자신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생각을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교사용 설문조사는 울산과 부산에 근무중인 9개 고등학교 50명의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4 자료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능 기출 어휘분석 절차

단어 빈도수 추출 절차	
1단계	- 아래한글 파일 → Text 파일로 변환 - 아래한글 다른 이름으로 저장
2단계	- Text 파일 중 영어인 글자 추출 - Visual Basic으로 프로그래밍 - 한 문자 읽은 후 한글인 경우 삭제

3단계	- 영어글자 중 영어단어 추출 (공백을 기준으로 추출) - Visual Basic으로 프로그래밍 - Split 함수 사용해서 공백문자로 영어단어 추출
4단계	- 영어단어 DB에 저장 - Access DB 사용 - Access의 Import 기능사용
5단계	- SQL 중 Group by 사용 - 단어, 빈도수 조회

2) 설문조사 분석절차

설문지 자료 분석 절차

1단계	- 학생, 교사 설문지로 나눔 → 학생은 남, 여 및 학교별로 분리
2단계	학교별로 발견전략 및 강화전략 항목정리
3단계	- 남, 여 학교 따로 정리 및 통합하여 학생 전체 자료완성 - 교사 자료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화
4단계	EXCEL PROGRAM 이용, 평균 및 순위 처리

4. 분석 결과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수능 기출 어휘 분석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과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4.1 수능 기출 어휘분석 결과

수능 기출 어휘분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영어 기본 어휘표와의 비교분석

7차 교육과정 기본 어휘 관련 지침표에 따라 지난 10년간 출제된 수능 기출 어휘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지난 10년간 출제된 수능 영어 시험에서는 전체 3,102개의 어휘가 출제되었으며, 그중 기본 어휘표 2,067개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는 총 1,035개로 이는 수능 전체 3,102개의 어휘 중 33.4%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기본 어휘 표에는 속해 있으나 아직까지 수능에 한번도 출제되지 않은 어휘는 361개로 이는 전체 2,067개의 어휘 중 1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수능시험에서는 기본 어휘표 중 83.5%의 어휘가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지금까지 수능시험에서는 전체 3,102개의 어휘중 1,706개, 58.5%의 어휘들만이 기본 어휘표에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수능 어휘 빈도수 및 순위

<표 1>은 수능 기출 어휘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50위 어휘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수능 어휘 순위 50위

수능 어휘 분석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the	2,209	26	with	232
2	to	1,465	27	do	230
3	a	1,227	28	not	229
4	of	1,085	29	can	222
5	and	959	30	he	216
6	you	907	31	what	206
7	I	817	32	one	196
8	in	815	33	or	190
9	is	619	34	all	188
10	that	487	35	will	186
11	it	477	36	about	177
12	for	444	36	so	177
13	are	364	38	their	169
14	we	328	39	an	168
15	have	317	40	buy	167
16	be	307	40	his	167
17	on	291	42	people	164
18	this	290	43	when	162
19	was	280	44	from	161
20	but	268	45	me	156
21	they	257	46	how	151
22	your	253	47	there	147
23	my	238	48	if	142
24	at	237	48	no	142
25	as	235	48	more	142

<표 1>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정관사 the로서 2,209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사전에서 분석된 결과들과도 일치되는 내용이다. 내용어를 살펴보면 명사(1회), 형용사(1회), 부사(2회), 동사(7회),

의문사(2회), 지시사(1회)등으로 전체 14회가 사용되었고, 기능어를 살펴보면, 관사(3회), 전치사(10회), 접속사(7회), 대명사(14회), 조동사(2회)등으로 전체 36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출제 빈도수가 높은 어휘들은 기능어가 7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내용어는 28%에 불과하다.

한편 품사별로 살펴보면 명사로는 유일하게 people(164회)이 많이 사용되었고, 동사로는 be(1,850회)동사와 have(579회)동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대명사로는 you(907회), I(817회), we(328회)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전치사는 to(1,465회), of(1,085회), in(815회)의 순이다. 접속사를 보면 and(959회), for(444회), but(268회), or(190회), so(177회)등 등위접속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종속 접속사로는 that(487회)과 when(162회), if(142회)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조동사는 can(246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부사의 경우 not(229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품사별로 10위 안에 포함된 어휘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2> 수능 어휘 품사별 순위

순위	명사	빈도	대명사	빈도	의문사	빈도	형용사	빈도	부사	빈도
1	people	164	you	907	what	206	the	2,209	not	229
2	time	130	I	817	when	162	a/an	1,395	there	147
3	work	86	that	487	how	151	no	142	very	109
4	man	83	it	477	who	142	more	141	then	106
5	world	73	we	328	which	67	good	108	well	90
6	right	70	this	290	why	57	many	104	only	87
7	problem	43	they	257	where	45	some	97	really	85
8	computer	42	your	253			different	44	too	84
9	person	41	my	238			every	44	always	73
10	change	40	he	216			little	44	here	72
순위	동사	빈도	조동사	빈도	전치사	빈도	접속사	빈도	감탄사	빈도
1	be	1,850	can	246	to	1,465	and	959	well	56
2	have	579	will	186	of	1,085	but	268	oh	50
3	do	380	would	97	in	815	as	235	wow	4
4	make	169	may	94	for	444	or	190	umm	3
5	say	137	should	84	on	291	so	177	ah	1
6	see	130	could	62	at	237	because	85	um	1
7	like	127	need	55	with	232	than	73		
8	get	121	must	54	about	177	next	35		
9	think	116	might	25	by	167	since	25		
10	work	100			from	161	until	24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사의 경우 people(164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time(130회), work(86회), man(83회)도 많이 사용되었다. 대명사의 경우는 you(907회), I(817회), it(477회), we(328회)와 같은 인칭 대명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that(487회), this(290회)와 같은 지시대명사들도

많이 사용되었다. 의문사의 경우는 what(206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when(162회), how(151회), who(142회) 순이었다. 의문 대명사 what의 경우 사람이나 사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형용사의 경우 정관사 the(2,209회)와 부정관사 a/an(1,395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no(142회), more(141회), good(108회)과 같은 성질 형용사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부사의 경우는 부정을 나타내는 not(229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very(109회), only(87회), really(85회), too(84회), always(73회)등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다. 동사의 경우는 be(1,850회)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have(579회), do(380회), make(169회) 순이었다. 조동사의 경우는 can(246회)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will(186회), would(97회)등이 그 다음 순이다. 전치사의 경우는 to(1,465회), of(1,085회), in(815회)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접속사의 경우는 and(959회), but(268회), or(190회), so(177회)와 같은 등위 접속사들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종속 접속사의 경우는 because(85회)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감탄사의 경우는 well(56회), oh(50회)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3) 듣기와 독해에 쓰인 어휘간의 비교분석

수능시험 1-17번 문항 듣기·말하기 영역에 쓰인 어휘들과 수능시험 18-50번 문항 읽기·쓰기 영역에 쓰인 어휘들간의 차이점을 논해 보고자 한다(부록 2 참조). 듣기와 독해에 쓰인 어휘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듣기 영역에서는 대명사 you(484회)가 정관사 the(400회)를 제치고 484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회화체의 경우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you가 많이 사용된 것 같다. 반면에 독해 영역에서는 여전

히 정관사 the(1,809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상위 50위 안에 들어가는 듣기와 독해에 쓰인 어휘들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듣기와 독해에 사용된 어휘 비교

품사	듣기	독해
전치사	7	11
접속사	4	17
대명사	13	14
관사	2	3
조동사	5	2
동사	9	9
형용사	2	1
의문사	2	1
감탄사	1	0
명사	3	1
부사	5	1
기능어	28	37
내용어	22	13

듣기 영역에서는 기능어가 28회, 내용어가 22회 사용되었다. 기능어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내용어도 매우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독해 영역에서는 기능어가 37회인데 반해 내용어는 13회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기능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듣기·말하기의 경우, 읽기·쓰기 보다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에 필요한 것은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내용이 충실해야만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4) 글의 종류, 목적, 분위기 및 태도 관련어 빈도수

<표 4>와 <표 5>는 수능시험에 나타난 글의 목적 및 분위기와 글의 종류 및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빈도수를 분석한 것이다.

<표 4> 글의 분위기 및 목적 빈도수

MOOD(심정 및 분위기)						AIM(글의 목적)		
어휘	의미	빈도	어휘	의미	빈도	어휘	의미	빈도
lonely	외로운	15	romantic	낭만적인	4	thanking	감사	62
serious	심각한	15	unpleasant	불쾌한	3	ordering	주문, 명령	18
angry	화난	14	terrified	겁에 질린	3	advising	충고	17
quiet	조용한	13	sorrowful	슬픈	3	appreciating	감사	17
sad	슬픈	11	regretful	후회스런	3	demanding	요구	13
surprised	놀란	10	frightening	무서운	3	requiring	요구	13
terrible	끔찍한	10	joyful	즐거운	3	agreeing	동의	10
humorous	해학적인	10	comic	희극적인	3	encouraging	격려	10
calm	고요한	10	emotional	감정적인	3	guiding	안내	9
disappointed	실망한	9	horrified	겁에 질린	2	warning	경고	9
worried	걱정되는	8	fantastic	환상적인	2	suggesting	제안	9
pleased	즐거운	7	delighted	즐거운	2	congratulating	축하	8
excited	흥분된	7	anxious	걱정하는	2	advertising	광고	8
relaxed	편안한	6	desparing	절망하는	2	permitting	허락	6
peaceful	평화로운	6	relieved	안심이되는	1	applying	적용	5
nervous	초조한	6	optimistic	낙관적인	1	greeting	인사	4
gloomy	우울한	6	impressive	인상적인	1	inviting	초대	4
upset	당황한	5	resentful	분개하는	1	recommending	추천	4
moving	감동적인	5	touching	감동적인	1	complaining	불평	4
funny	우스운	5	poetic	시적인	1	apologizing	사과	3
festive	축제적인	5	astonished	놀란	1	appealing	호소	2
noisy	시끄러운	4	depressed	우울한	1	informing	전달	2
moral	도덕적인	4	embarrassed	당황한	1	rejecting	거절	2
frustrated	좌절한	4	solitary	외로운	1	commanding	명령	1
bored	지루한	4				dismissing	해고	1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의 목적을 묻는 경우 thanking(62회), advising(17회)등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recommending(4회), dismissing(1회)도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작가의 심정 및 글의 분위기를 묻는 경우 lonely(15회), serious(15회), angry(14회), quiet(13회), sad(11회), surprised(10회), terrible(10회), humorous(9회), calm(10회)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tragic, sympathetic, pessimistic, miserable, instructive, monotonous 같은 어휘들은 아직 한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중 instructive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수능시험이 교훈적인 내용을 다룰 경우가 많으므로 출제가 예상되는 어휘라 생각된다.

<표 5> 글의 태도 및 장르 빈도수

ATTITUDE(태도)			GENRE(장르)		
어휘	의미	빈도	어휘	의미	빈도
cold	차가운	11	news	뉴스	24
personal	개인적인	11	letter	편지	23
positive	긍정적인	10	address	연설문	11
indifferent	무관심한	10	message	메세지	10
negative	부정적인	7	poetry	시	7
concerned	걱정되는	6	guide	안내문	6
lazy	게으른	5	dictionary	사전	5
cheerful	쾌활한	4	novel	소설	4
confused	혼란스런	4	essay	수필	3
timid	소심한	4	drama	드라마	2
critical	비판적인	3	advertisement	광고	1
active	활동적인	3	article	신문기사	1
hopeless	절망한	3			
curious	호기심 많은	3			
confident	확신하는	3			
thoughtful	신중한	3			
sincere	성실한	3			
suspicious	의심하는	2			
formal	형식적인	2			
terrific	아주 멋진	2			
passive	수동적인	2			
impatient	열망하는	2			
frightened	겁에 질린	2			
satisfied	만족스런	2			
friendly	다정한	2			
annoying	괴롭히는	2			
sensitive	민감한	2			
diligent	부지런한	1			
grateful	감사하는	1			
hopeful	희망적인	1			
objective	객관적인	1			
neutral	중립적인	1			
humanitarian	인도적인	1			
bitter	쓰라린	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cold(11회), personal(11회), positive(10회), indifferent(10회)등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cynical, satirical 같은 어휘들이 현재까지는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이다. 또한 글의 종류를 묻는 경우 뉴스(24회)나 편지(23회)가 많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biography (전기문)와 같은 중요한 어휘는 현재까지는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제가 예상되는 어휘에 속한다.

5) 담화 연결어 빈도수 및 순위

담화 연결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화 연결어는 단락과 단락을 연결해 주는 연결사이다. 담화 연결어에는 다양한 구의 형태로 된 연결어들이 많으나 수능 빈출 담화 연결어들만 수록하였다.

<표 6>는 수능시험에 나온 담화 연결어를 의미적으로 분류한 후 빈도수와 순위를 매겨 두었다.

<표 6> 담화 연결어 유형별 빈도수 및 순위

순위	첨가	빈도	인과	빈도	시간순서	빈도	대조, 역접	빈도
1	and	959	so	102	when	162	but	268
2	too	72	because	85	then	87	however	56
3	also	48	since	25	after	54	while	34
4	again	48	therefore	12	before	46	yet	15
5	in addition	7	as a result	12	next	35	on the other hand	9
6	moreover	5	thus	11	while	34	instead of	9
7	besides	4	due to	8	finally	25	in contrast	3
8	furthermore	1	accordingly	1	at first	10	on the contrary	2
9			consequently	1	in the end	1	whereas	1
순위	결론	빈도	비교	빈도	양보	빈도	강조	빈도
1	finally	25	as	235	still	35	in fact	16
2	in short	7	like	115	despite	7	actually	9
3	in conclusion	4	than	73	although	6	indeed	6
4	eventually	4	similar to	3	nevertheless	2	as a matter of fact	3
5	accordingly	1	similarly	1	nonetheless	2	above all	2
6	ultimately	1	unlike	1			to begin with	1
순위	예시	빈도	열거	빈도	정의	빈도	전환	빈도
1	for example	32	first	68	that is	16	by the way	2
2	for instance	21	last	40	in other words	5		
3			second	21				

위 표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첨가어를 보면 and(959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too(72회), also(48회) 같은 연결어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과 연결어를 보면 so(102회)가 가장 많이 쓰였고, 그 다음으로 because(85회), since(25회)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시간 연결어를 보면 when(162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대조·역접 연결어는 but(268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지만 however도 56회나 사용되었다. 결론 연결어를 보면 finally(25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in short의 경우도 7회나 사용되

었다. 비교 연결어를 보면 as(235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like(115회)와 than(73회)도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as는 시간이나, 양보, 비례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like도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순수 비교 연결어로는 than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양보 연결어를 보면 still(35회)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강조의 경우 in fact(16회)가, 예시의 경우는 for example(32회)이, 열거의 경우 first(68회)가, 정의로는 that is(16회)가 각각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6) 수능 빈출 주요 부사 및 다의어, 동사, 형용사, 명사

<표 7>, <표 8>, <표 9>, <표 10>은 수능시험에 나온 주요 부사 및 다의어, 동사, 형용사, 명사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 어휘들은 출제 빈도가 높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표 7> 수능 빈출 주요 부사 및 다의어

	부사	빈도	다의어	빈도
1	often	52	like	124
2	sometimes	31	matter	27
3	ago	18	company	22
4	instead	15	culture	15
5	maybe	12	face	15
6	especially	8	make	15
7	unfortunately	8	saw	15
8	exactly	7	end	11
9	immediately	7	race	11
10	frequently	5	reason	11
11	gradually	5	report	11
12	neither	5	run	9
13	somewhat	5	interest	9
14	occasionally	4	ground	9
15	particularly	4	effect	7

표 계속

16	seriously	4	rest	6
17	lately	3	view	6
18	seldom	3	fire	6
19	competitively	3	express	6
20	considerably	1	background	5
21	constantly	1	fit	5
22	hesitantly	1	deliver	3
23	sharply	1	lift	3
24	seemingly	1	sport	3
25	superbly	1	address	2
26	terribly	1	customs	2
27	temporarily	1	recorder	2
28	slightly	1		

<표 7>을 보면 부사의 경우 often(52회), sometimes(31회), frequently (5회), occasionally(4회), seldom(3회)와 같은 빈도 부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의어의 경우 like(124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like는 동사, 형용사, 전치사, 명사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그 다음으로 matter(27), company(22회), face(15회)등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 matter는 명사로 쓰일 때는 ‘문제’로, 동사로 쓰일 때는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company도 ‘회사’ 뿐만 아니라, ‘친구’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며, face는 명사로 쓰일 때는 ‘얼굴’ 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직면하다’(confront)는 뜻으로 쓰인다.

<표 8> 수능 빈출 주요동사와 빈도수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practice	13	measure	2	yield	1	resort	1
cause	10	pollute	2	consult	1	resume	1
relax	9	remove	2	detect	1	retreat	1
imagine	9	reserve	2	dismay	1	reveal	1
explain	9	react	2	evaluate	1	revise	1
appreciate	8	recall	2	enhance	1	scan	1
count	7	respond	2	emphasize	1	shutter	1
raise	7	recommend	2	expel	1	sacrifice	1
ignore	6	accompany	2	expose	1	retire	1
remind	6	sow	2	falter	1	soak	1
relieve	5	stick	2	forbid	1	stir	1
lend	5	survey	2	glitter	1	sprout	1
punish	5	venture	2	graze	1	substitute	1
recognize	5	transfer	2	haul	1	summarize	1
occur	5	witness	2	institute	1	suspect	1
bother	4	absorb	2	inform	1	sympathize	1
prevent	4	contribute	2	hire	1	subtract	1
reduce	4	indoctrinate	2	interfere	1	tolerate	1
exhibit	4	guarantee	2	interpret	1	toss	1
exit	3	communicate	2	miscommunicate	1	trigger	1
compete	3	decline	2	monitor	1	trim	1
neglect	3	wound	1	necessitate	1	ventilate	1
blame	3	assess	1	occupy	1	whisper	1
survive	3	consume	1	omit	1	whistle	1
wrap	3	constitute	1	overhear	1	accuse	1
vary	3	consist	1	perform	1	account	1
wreck	3	conform	1	polish	1	adapt	1
approve	2	conceal	1	pour	1	advertise	1
analyze	2	attach	1	predict	1	afflict	1
apologize	2	book	1	prevail	1	attract	1
celebrate	2	certify	1	proceed	1	applause	1
face	2	classify	1	prohibit	1	announce	1
forecast	2	charge	1	prosper	1	anticipate	1
disturb	2	commit	1	protest	1	yell	1
dissatisfy	2	comment	1	quarrel	1	assess	1
discourage	2	recite	1	recycle	1		
celebrate	2	register	1	rely	1		

<표 8>을 보면 동사의 경우 practice(13회), cause(10회), relax(10회), imagine(9회), explain(9회), appreciate(9회)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prevent(4회), reduce(4회), compete(3회), survive(3회), apologize(2회), recommend(2회), relieve(2회), announce(1회), inform(1회), protest(1회), recycle(1회), transfer(1회)같은 동사들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어휘들이다.

<표 9> 수능 빈출 주요 형용사와 빈도수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lonely	15	helpful	2	impressive	1	spacious	1
serious	15	legal	2	immature	1	startled	1
major	14	modest	2	impolite	1	stink	1
quiet	13	mysterious	2	incredible	1	tasteful	1
natural	12	permanent	2	inexpensive	1	sore	1
calm	10	precious	2	humanitarian	1	thrilling	1
popular	10	profitable	2	harmonious	1	tremendous	1
available	9	psychological	2	heartfelt	1	unaided	1
essential	8	promising	2	healthful	1	unavailable	1
exported	7	rude	2	hidden	1	unavoidable	1
private	7	sensitive	2	intact	1	unbearable	1
effective	6	spiritual	2	knowledgeable	1	unborn	1
independent	5	severe	2	maturational	1	unchallenged	1
lazy	5	rough	2	mechanical	1	unchained	1
normal	5	terrific	1	irresistible	1	unchangeable	1
reasonable	5	trivial	1	ironic	1	unclear	1
absolute	5	vague	1	insulated	1	uncomfortable	1
conscious	4	absurd	1	marine	1	uncommon	1
ethnic	4	abstract	1	military	1	uncovered	1
huge	4	accurate	1	minor	1	unhurried	1
medical	4	brilliant	1	mutual	1	unimportant	1
artificial	3	burdensome	1	noticeable	1	unopened	1

표 계속

ancient	3	apparent	1	offensive	1	unpaid	1
competent	3	dynamic	1	outstanding	1	unrestricted	1
genuine	3	disciplined	1	overconfident	1	untroubled	1
efficient	3	definite	1	overcrowded	1	unwanted	1
harsh	3	decent	1	overflowing	1	unthinkable	1
nonmaterial	3	digestive	1	panic	1	uprooted	1
tropical	3	destructive	1	multiple	1	valid	1
sincere	3	defective	1	monetary	1	visible	1
contemporary	2	domestic	1	misleading	1	vital	1
constructive	2	disposable	1	nearsighted	1	unique	1
enormous	2	fragile	1	revengeful	1	utmost	1
extreme	2	former	1	respectable	1	worthwhile	1
ethical	2	foggy	1	remarkable	1	witty	1
harmful	2	forgetful	1	relative	1	wretched	1
innocent	2	familiar	1	ripening	1		
passionate	2	facial	1	slamming	1		
messy	2	environmental	1	smooth	1		
manual	2	experienced	1	solitary	1		

<표 9>을 보면 형용사의 경우 lonely(15회), serious(15회), major(14회), quiet(13회), natural(12회), calm(10회), popular(10회) 같은 형용사들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effective(6회), huge(4회), artificial(3회), competent(3회), genuine(3회), efficient(3회), enormous(2회), psychological(2회), promising(2회), severe(2회), trivial(1회), brilliant(1회), impressive(1회), humanitarian(1회), tremendous(1회), mutual(1회)등의 형용사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이므로 반드시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

<표 10> 수능 빈출 주요 명사와 빈도수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computer	68	explosion	3	competence	2	merit	1	stem	1
student	37	expert	3	category	2	method	1	strengths	1
experience	29	frequency	3	temperature	2	masterpiece	1	supplement	1
TV	22	majority	3	contribution	2	malnutrition	1	surface	1
information	16	operation	3	morality	1	margin	1	tablet	1
technology	14	opportunity	3	literacy	1	meadow	1	tense	1
economy	14	prevention	3	obedience	1	materialism	1	thermometer	1
trip	12	recycling	3	occurrence	1	midterm	1	theory	1
competition	12	quantity	3	obstacle	1	minority	1	theme	1
medicine	9	tool	3	peasant	1	slope	1	tradeoff	1
purpose	9	evolution	3	photographer	1	anniversary	1	tragedy	1
damage	9	misdeed	2	physician	1	assembly	1	ultraviolet	1
environment	9	popularity	2	copy	1	barbarism	1	victim	1
concentration	8	criticism	2	curriculum	1	branch	1	welfare	1
equipment	8	atmosphere	2	dictatorship	1	boredom	1	volunteerism	1
war	8	assumption	2	diversity	1	celebrity	1	workforce	1
crises	7	biology	2	disaster	1	client	1	worship	1
magazine	7	clue	2	discomfort	1	physics	1	zoology	1
prize	7	comparison	2	drought	1	politician	1	zone	1
questionnaire	7	criteria	2	device	1	preference	1	wool	1
quality	6	cottage	2	elegance	1	principle	1	wildlife	1
victim	5	fund	2	employer	1	priority	1	wilderness	1
ceremony	5	gene	2	extinction	1	productivity	1	compensation	1
disease	5	grave	2	feedback	1	propriety	1	strategy	1
ecosystem	5	greed	2	geometry	1	psychology	1	adolescent	1
error	5	journalist	2	famine	1	purity	1	task	1
literature	5	impact	2	glacier	1	ranch	1	lore	1
tension	5	exposure	2	glare	1	recruitment	1	sorrow	1
mankind	4	function	2	hardship	1	relaxation	1	aim	1
approach	4	pedestrian	2	ignorance	1	respiration	1	algebraic	1
consumption	4	media	2	insight	1	reward	1	livestock	1
facilities	4	interaction	2	gratitude	1	sanitation	1	sociologist	1
internet	4	isolation	2	homesick	1	satellite	1	monologue	1
humanity	4	mechanic	2	homepage	1	scandal	1	analyst	1
issue	4	osteoporosis	2	injury	1	scenery	1		
employee	3	millionaire	2	intersection	1	scholar	1		
survival	3	shortage	2	irregularities	1	scholarship	1		
communication	3	similarity	2	latecomer	1	semester	1		
conflict	3	ritual	2	junk	1	sermon	1		
consumer	3	revolution	2	legend	1	shuttle	1		

<표 10>은 수능 빈출 주요 명사들을 분석한 표이다. 주로 학습(공부), 정보화시대, 과학문명의 발달, 전쟁, 환경, 시대 당면한 문제, 질병, 경제, 직업 등과 관련된 어휘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omputer(68회), TV(22회), information(16회), technology(14회), economy(14회), competition(12회), medicine(9회), environment(9회), war(8회), crises(7회), disease(5회), ecosystem(5회), internet(4회), communication(3회). 한편 interaction(2회), strategy(1회)와 같은 어휘들도 최근 수능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어휘들로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 설문조사 결과

지금까지 수능 기출 어휘분석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특징들과 수능 빈출 주요 어휘들을 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 학생과 교사 설문지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을 토대로 학생과 교사의 어휘 학습 및 교수 전략을 살펴보고, 박준언(2001), 황영금(2002), Schmitt(1997)의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4.2.1 학습자의 어휘 전략 사용의 유의도

학습자의 어휘전략 사용 빈도 및 유용성 인식도를 살펴보고, 현재 사용 중인 전략과 도움이 되는 전략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자의 어휘 전략 사용 빈도

<표 11>은 학습자가 영어 어휘 학습시 실제 사용하는 발견 전략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3.79), ‘본문의 문맥을 통해 추측한다’(3.60)와 ‘친구에게 물어본다’(3.57)이다.

<표 11> 학습자가 현재 사용하는 발견 전략

전 략	평 균	순 위
품사를 알아본다	2.34	7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분석해 본다	2.19	8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아낸다	2.76	4
본문의 문맥(전후 관계)을 통해 추측한다	3.60	2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	3.79	1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	1.88	12
어휘표를 참고한다	2.51	6
우리말 뜻을 교사에게 물어본다	2.64	5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다	2.03	9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1.98	10
친구에게 뜻을 물어 본다	3.57	3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낸다	1.98	10
전체 평균	2.60	

고등학교 학습자는 ‘친구에게 물어보거나(3.95)’, ‘유용한 그림을 통해 추측한다(3.40)’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황영금, 2002, p.16) 중학교 학습자와는 다르게 영한사전을 찾아보거나, 문맥을 통해 추측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독립심이 생기고, 담화를 중심으로 한 독해위주의 수업을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문맥을 통한 추측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전략은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1.88)와 ‘그룹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낸다’(1.98)등이다. 중학교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습자도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는 전략’(1.88)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어휘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자들의 부담감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보다 더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영어교사들의 영영 사전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적극 요망된다. 그리고 ‘그룹활

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낸다'(1.98)는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실시하는 소그룹 활동을 통한 협동수업이 많은 중학교 수업과는 달리 고등학교 수업이 입시위주의 수업이라는 특성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강화 전략은 학습자가 뜻을 알게 된 어휘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전략인데, <표 12>는 학습자가 현재 사용하는 강화 전략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2> 학습자가 현재 사용하는 강화전략

전 략	평균	순위
친구들과 함께 단어를 익히고 연습한다	2.41	19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가진다	1.71	26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운다	2.28	23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본다	2.88	9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짓는다	3.07	4
동의어나 반의어를 연관지어 학습한다	2.87	10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	2.29	22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본다	2.40	20
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3.50	3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3.60	2
단어를 익힐 때 큰소리로 말해본다	3.03	7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킨다	2.83	12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3.03	7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힌다	2.46	17
품사를 암기한다	2.33	21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본다	2.51	16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	3.06	5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	2.14	25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	2.43	18
단어를 반복해서 써본다	3.66	1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힌다	2.85	11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풀어본다	2.63	15
녹음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듣는다	2.25	24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한다	2.67	14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	2.81	12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	3.04	6
전체 평균	2.72	

사용도가 가장 높은 전략은 ‘단어를 반복해서 써 본다’(3.66)이다. 그 다음은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3.60)와 ‘단어의 철자를 익힌다’(3.50)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번 배운 단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반복해서 단어를 쓰거나 단어의 발음과 철자를 익히는 전통적인 어휘학습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게 사용하는 전략은 ‘원어민과 함께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가진다’(1.71)이다. 원어민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영어공부에 보다 흥미를 주고 동기부여가 되며, 배운 어휘를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여건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원어민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부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현대 영어교육에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어휘 교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인드 맵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영어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각각 2.29, 2.67로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강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다양한 영어매체를 이용하거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전략보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보거나 외우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과 <표 12>에서 학습자가 사용하는 발견전략과 강화전략의 전체 평균을 비교해 보면 뜻을 알아내기 위한 발견 전략(2.60)과 암기를 위한 강화 전략(2.72)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전략 사용 빈도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2) 학습자의 전략에 대한 유용성 인식

<표 13>은 발견 전략이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13>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발견 전략

전 략	평 균	순 위
품사를 알아본다	2.93	7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분석해 본다	2.93	7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아낸다	3.26	3
본문의 문맥(전후 관계)을 통해 추측한다	3.88	1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	3.86	2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	3.24	4
어휘표를 참고한다	2.87	9
우리말 뜻을 교사에게 물어본다	2.83	12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다	2.87	9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3.11	5
친구에게 뜻을 물어 본다	3.05	6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낸다	2.85	11
전체 평균	3.14	

학습자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본문의 문맥을 통해 추측한다’(3.88)이다. Finocchiaro(1964)는 “어휘는 항상 문맥 속에서 제시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며 문맥을 통한 학습법을 강조하였다. Brown(1972)도 “새로운 단어를 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기계적인 학습과 유사하며 반면에 단어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유추해 내려고 시도하게 되면 유의미적인 학습이 되어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문맥학습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문맥을 통한 어휘 학습 전략을 어휘학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이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법시험 보다는 담화중심의 독해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수능시험의 영향이 다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3.86)는 전략도 매우 높았는데, 이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결과이며, 사전을 찾아보는 것은 뜻을 알아내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전을 이용하는 바람직한 순서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문맥을 이용하여 의미 추측하기, 다음으로 사전에서 의미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사전에서 확인한 의미를 문맥에서 다시 살펴보기 순이다. 그리고 사전을 이용할 때는 처음에는 영한사전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습자의 능숙도가 커질수록 영영 사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김영숙, 2002).

<표 14>는 학습자가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화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표 14>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화 전략

전 략	평 균	순 위
친구들과 함께 단어를 익히고 연습한다	3.27	18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가진다	3.76	2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운다	3.22	19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본다	3.43	15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짓는다	3.57	12
동의어나 반의어를 연관지어 학습한다	3.59	11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	3.10	23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본다	3.33	17
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3.51	13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3.69	6
단어를 익힐 때 큰소리로 말해본다	3.65	8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킨다	3.21	20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3.02	24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힌다	2.81	26
품사를 암기한다	3.10	22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본다	3.48	14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	2.83	25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	3.68	7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	3.63	9
단어를 반복해서 써본다	3.62	10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힌다	3.15	21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풀어본다	3.34	16
녹음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듣는다	3.70	4
영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한다	3.70	4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	3.73	3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	3.86	1
전체 평균	3.42	

<표 14>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전략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히다’(3.86)이다. 이는 Judd(1978), Lane(1991)이 주창한 것으로 매우 효과적인 어휘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 학생들의 유용도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학습자들이 배운 어휘를 효과적으로 잘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학습한 바 있는 어휘 항목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지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지식의 조화와 체계화는 기존 지식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Lane, 1991).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사항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기억된다고 볼 수 있다. 어휘 학습도 이와 유사한 원리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Judd(1978)는 정기적인 복습이 어휘 학습에 필수적임을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첫째, 어떤 단어나 구를 많이 접할수록 기억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반복적인 연습 및 학습은 다의성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다양한 복습 활동은 어떤 단어나 구의 사회 언어학적 변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원어민과 함께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가진다’(3.76),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3.73),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한다’(3.70), ‘녹음 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듣는다’(3.70)는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어민과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가진다는 전략은 학습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도는 1.71로서 가장 낮았지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유용도는 3.76으로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황영금(2002, p.21)의 연구결과에서, ‘단어의 발음을 해본다’(4.52), ‘단어를 반복해서 써 본다’(4.46), ‘단어의 철자를 외운다’(4.30),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4.27)등과 같은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학교 교과서의 어휘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다양한 어휘학습 전략을 접해 보지 못한 중학생들에 비해, 수능 독해의 영향으로 수준 높은 어휘를 접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휘학습을 받은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가장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전략 중에는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힌다’(2.81, 26위)와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3.10, 23위)는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은 접사를 이용하는 방법의 효율성과 마인드 맵을 이용한 창의적인 어휘 학습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영국의 Buzan(1970)에 의해 고안된 마인드 맵 어휘 학습법은 이미지와 핵심단어 그리고 색과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좌우 두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21세기형 정보관리 및 활용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접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핵심적인 라틴어, 희랍어로 이루어진 접사나 어근을 학습함으로써 어휘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어휘학습 방법이다. 마인드 맵 학습법과 접사와 어근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방법들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었으면 한다.

전략의 유용성 인식에 대한 위 <표 13>과 <표 14>의 평균을 <표 11>과 <표 12>와 비교해 보면 발견전략(3.14)과 강화 전략(3.42)이 모두 현재 사용하는 발견전략(2.60), 강화전략(2.7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현재 어휘 학습에 더 많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습자의 현재 사용 전략과 도움이 되는 정도의 인식 비교

<표 15>는 발견 전략에서 학생들이 현재 사용하는 전략인 <표 11>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인 <표 13>을 비교한 것이다.

<표 15> 현재 사용하는 발견 전략과 도움이 되는 정도의 비교

전 략	현재 사용하는 전략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품사를 알아본다	2.34	7	2.93	7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분석해 본다	2.19	8	2.93	7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아낸다	2.76	4	3.26	3
본문의 문맥(전후 관계)을 통해 추측한다	3.60	2	3.88	1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	3.79	1	3.86	2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	1.88	12	3.24	4
어휘표를 참고한다	2.51	6	2.87	9
우리말 뜻을 교사에게 물어본다	2.64	5	2.83	12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다	2.03	9	2.87	9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1.98	10	3.11	5
친구에게 뜻을 물어 본다	3.57	3	3.05	6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낸다	1.98	10	2.85	11
전체 평균	2.60		3.14	

위 표에서 상위에 속한 2개 항목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전략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현재 어휘 학습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학습자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3.79)이지만, 실제 학습을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본문의 문맥을 통해 추측한다’(3.88)로, 학습자들은 사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문맥을 통해 추측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평균이 가장 낮은 전략은 각각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와 ‘우리말 뜻을 교사에게 물어본다’로 나타났다. 특히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는 전략은 실제 사용도는 1.88로 가장 낮았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3.24(4)로서 매우 높았다. 학습자들은 영영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려워 보여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은 학습자가 어휘 학습시 한번 배운 단어의 뜻을 오래 기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화 전략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략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비교한 것이다.

<표 16> 현재 사용 강화 전략과 도움이 되는 정도의 비교

전 략	현재 사용 전략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친구들과 함께 단어를 익히고 연습한다	2.41	19	3.27	18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가진다	1.71	26	3.76	2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운다	2.28	23	3.22	19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본다	2.88	9	3.43	15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짓는다	3.07	4	3.57	12
동의어나 반의어를 연관지어 학습한다	2.87	10	3.59	11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	2.29	22	3.10	23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본다	2.40	20	3.33	17
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3.50	3	3.51	13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3.60	2	3.69	6
단어를 익힐 때 큰소리로 말해본다	3.03	7	3.65	8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킨다	2.83	12	3.21	20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3.03	7	3.02	24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힌다	2.46	17	2.81	26
품사를 암기한다	2.33	21	3.10	22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본다	2.51	16	3.48	14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	3.06	5	2.83	25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	2.14	25	3.68	7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	2.43	18	3.63	9
단어를 반복해서 써본다	3.66	1	3.62	10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힌다	2.85	11	3.15	21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풀어본다	2.63	15	3.34	16
녹음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듣는다	2.25	24	3.70	4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한다	2.67	14	3.70	4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	2.81	12	3.73	3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	3.04	6	3.86	1
전체 평균	2.72		3.42	

26개 전략 중 상위 5항목이 전혀 다르다. 현재 사용 전략에서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 본다’(3.66),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3.60), ‘단어의 철자를 익힌다’(3.50),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짓는다’(3.07),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3.06)등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3.86), ‘원어민과 함께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가진다’(3.76),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점하고 익혀나간다’(3.73),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를 이용한다’(3.70), ‘녹음 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듣는다’(3.70)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 전략에서는 주로 단어의 철자와 발음과 관련된 반복되는 기억 전략을 많이 사용한 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초인지 전략과 사회전략 등 다양한 고도의 전략을 선호함을 볼 수 있다. 현재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 단어의 철자나 발음을 중심으로 암기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반복이나, 원어민과의 대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낸 하위 3개의 항목 또한 일치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 전략에서는 ‘원어민과 함께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가진다’(1.71),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2.14), ‘녹음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듣는다’(2.25)로 나타난 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힌다’(2.81),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2.83),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3.02) 등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교육여건이 되어 있지 않거나, 동작이 수반되는 전략들은 꺼리는 경향이 있고,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와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는 전략은 현재 사용도 면에서는 28개 항목 중 각각 5위와 7위였으나, 실제 도움이 되는 정도에 있어서는 각각 25위와 24위로,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2.2 학습자의 성별 차이와 전략 사용의 유의도

이 장에서는 남, 여 학생간에 어휘 학습 전략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황영금(2002)의 연구에서는 발견전략, 강화전략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항목 전체 평균에 있어서 약 2점 차이로 높다는 분석결과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항목은 품사, 접사 및 어근을 알아보는 전략과 어휘표를 찾아보거나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전략들이었다.

<표 17>은 학습자가 어휘 학습시 사용하는 발견 전략에 성별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이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학습자의 성별이 학습 전략에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자

<표 17> 남, 여학생간의 어휘 발견 전략 사용도 비교

전 략	남학생		여학생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품사를 알아본다	2.38	7	2.31	7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분석해 본다	2.12	8	2.27	8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아낸다	2.65	5	2.90	4
본문의 문맥(전후 관계)을 통해 추측한다	3.56	2	3.64	3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	3.80	1	3.79	1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	1.80	12	1.98	11
어휘표를 참고한다	2.39	6	2.65	5
우리말 뜻을 교사에게 물어본다	2.69	4	2.57	6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다	2.00	9	2.07	10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1.98	10	1.98	11
친구에게 뜻을 물어 본다	3.49	3	3.68	2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낸다	1.81	11	2.19	9
전체 평균	2.56		2.67	

남, 여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견전략은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로 각각 (3.80), (3.79)로 매우 유사하였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그 다음으로 ‘문맥을 통해 추측한다’(3.56)라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여학생은 ‘친구에게 뜻을 물어본다’(3.68)라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결정 전략을 많이 사용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적인 면을 추구하는 남성과 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여성간의 성격적인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들이 가장 적게 사용한 발견전략을 살펴보면, 남, 여 모두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1.80)는 전략이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평균을 살펴보면 비슷하나 대체적으로 여학생들의 전략 사용이 조금 더 많았다.

<표 18>은 강화전략에서 남, 여간의 전략 사용을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다.

<표 18> 남, 여학생간의 어휘 강화 전략 사용도 비교

전 략	남학생		여학생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친구들과 함께 단어를 익히고 연습한다	2.36	18	2.46	18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가진다	1.71	26	1.70	26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운다	2.29	20	2.27	25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본다	2.81	12	2.98	8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짓는다	3.12	6	3.01	6
동의어나 반의어를 연관지어 학습한다	2.94	8	2.78	13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	2.28	21	2.29	24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본다	2.34	19	2.41	21
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3.32	4	3.35	4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3.68	2	3.50	1
단어를 익힐 때 큰소리로 말해본다	2.87	10	3.22	5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킨다	2.77	14	2.90	10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3.09	7	2.95	9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힌다	2.25	22	2.72	15
품사를 암기한다	2.23	23	2.45	19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본다	2.48	17	2.54	17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	2.86	11	3.00	7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	1.92	25	2.41	21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	3.46	3	3.40	2
단어를 반복해서 써본다	3.70	1	3.36	3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힌다	2.88	9	2.64	16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풀어본다	2.68	15	2.45	19
녹음테이프로 어휘목록을 듣는다	2.20	24	2.32	23
영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한다	2.51	16	2.83	12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	2.78	13	2.86	11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	3.25	5	2.77	14
전체 평균	2.72		2.75	

발견전략과는 달리 암기를 위주로 하는 강화 전략에서는 전체적인 평균이 남자가 2.72, 여자가 2.75로서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남:3.25, 여:2.77)와 ‘단어를 반복해서 써 본다’(남:3.70, 여:3.36)는 전략으로 이는 주로 반복 암기 전략과 관계가 있다. 반면에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전

략으로는 ‘단어를 익힐 때 큰소리로 말해본다’(여:3.22, 남:2.87), ‘접사와 어근을 익힌다’(여:2.72, 남:2.25),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여:2.41, 남:1.92), ‘영어매체를 이용한다’(여:2.83, 남:2.56) 등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보다 더 다양한 전략, 동작이 수반되는 전략, 인지적, 초인지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섬세하고 구체적인 어휘 전략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3항목을 살펴보면, ‘단어를 반복해서 써 본다’(3.70),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3.68),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3.46)로 주로 단어자체에 관련된 암기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도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3.50),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3.40), ‘단어를 반복해서 써 본다’(3.36)로 남학생의 경우와 같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단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주로 단어자체와 관련된 반복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9>에서는 발견전략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남, 여간의 인식정도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19> 남, 여학생간의 발견 전략 도움 정도 인식 비교

전 략	남학생		여학생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품사를 알아본다	2.94	7	3.10	6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분석해 본다	2.90	8	2.96	9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아낸다	3.18	4	3.67	3
본문의 문맥(전후 관계)을 통해 추측한다	3.82	2	3.95	1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	3.84	1	3.90	2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	3.10	6	3.41	4
어휘표를 참고한다	2.84	9	2.86	12
우리말 뜻을 교사에게 물어본다	2.78	10	2.88	11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다	2.76	11	3.01	7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3.28	3	3.14	5
친구에게 뜻을 물어 본다	3.14	5	2.94	10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낸다	2.75	12	2.97	8
전체 평균	2.79		3.23	

전체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들(2.79) 보다 여학생들(3.23)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미국 상황에서 여자가 일반적인 학습 전략, 영어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 의미 확인 및 전달 전략, 학습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전략 등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던 Ehrman과 Oxford(1989)의 조사결과와도 매우 일치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1, 2위 항목을 살펴보면 남학생들의 경우는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3.84)와 ‘문맥을 통해 추측한다’(3.82)이며, 여학생들의 경우도 ‘문맥을 통해 추측한다’(3.95)와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3.9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 여 모두 사전이용과 문맥을 통한 추측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남학생들의 경우 문맥을 통한 추측보다는 사전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들의 경우는 사전이용 보다는 문맥을 통한 추측이 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20>은 강화 전략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남, 여간의 인식정도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20> 남, 여학생간의 강화 전략 도움 정도 인식 비교

전 략	남학생		여학생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친구들과 함께 단어를 익히고 연습한다	3.18	20	3.40	13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가진다	3.74	3	3.79	1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운다	3.20	18	3.24	17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본다	3.36	14	3.52	9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짓는다	3.56	12	3.59	7
동의어나 반의어를 연관지어 학습한다	3.64	11	3.52	9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	3.19	19	3.00	23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본다	3.35	15	3.30	16
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3.65	10	3.34	15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3.74	3	3.63	6
단어를 익힐 때 큰소리로 말해본다	3.74	3	3.53	8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킨다	3.18	20	3.24	17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3.04	23	3.01	22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힌다	2.97	24	3.10	21
품사를 암기한다	2.86	25	2.76	26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본다	3.22	16	2.96	24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	3.54	13	3.40	13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	2.74	26	2.95	25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	3.70	8	3.65	4
단어를 반복해서 써본다	3.72	6	3.51	11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힌다	2.72	6	3.48	12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풀어본다	3.12	22	3.18	19
녹음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듣는다	3.21	17	3.05	21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한다	3.67	9	3.73	2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	3.76	2	3.69	3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	4.01	1	3.65	4
전체 평균	3.42		3.35	

앞에서 살펴보았던 현재 사용중인 평균치(남:2.72, 여:2.75)보다 도움 정도 인식 평균치(남:3.42, 여:3.35)가 남, 여 모두 훨씬 높았다. 도움 정도 인식평균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3.42 로서 여학생의 3.35보다 더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실제 사용도는 여학생보다 약간 낮았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도에 있어서는 여학생보다 높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남학생의 경우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는 초인지 전략의 평균치가 4.01로서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화전략이었다. 이는 주기적인 반복이 가장 효과적인 어휘 기억 전략임을 주장했던 학자들(Jenkins & Dixon, 1983; Judd, 1978; Lane, 1991; Nation, 1982)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남자 4항목, 여자 3항목을 제외하고는 평균치가 모두 3.0점을 초과하였다. 이는 본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항목들이 기억 강화를 위해 매우 도움이 되는 전략들임을 잘 말해준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화 전략 상위 5항목들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4.01),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3.76), ‘원어민과 함께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가진다’(3.74),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3.74), ‘단어를 익힐 때 큰소리로 말해본다’(3.74) 등으로 초인지 전략, 사회전략, 기억전략 순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원어민과 함께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가진다’(3.79), ‘영어매체를 이용한다’(3.73),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3.69),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3.65),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3.65) 등으로 사회전략, 초인지 전략, 인지전략 순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내용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보다 더 다양하게 어휘 학습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억 강화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2개 항목은 남, 여 모두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와 ‘품사를 암기한다’ 등이었다. 중학생과는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 몸짓으로 표현해 본다든지, 단순한 품사 암기 등은 별로 기억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의 어휘교수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

4.2.3 교사의 어휘 지도 전략과 유용성의 인식 비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전략에 관한 38개의 설문 문항을, 새 단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발견전략 12문항과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암기하게 할 때 사용하는 강화전략 26문항으로 나누어 빈도수와 순위를 처리하였다.

1) 교사의 어휘 지도 전략 사용 빈도

<표 21>은 현재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발견 전략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표 21> 교수 발견 전략

전 략	평균	순위
품사를 알게 한다	3.74	3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알게 한다.	3.76	2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게 한다	3.14	6
본문의 문맥을 통해 추측하도록 가르친다	3.90	1
영한 사전에서 찾아보게 한다	3.32	5
영영 사전에서 찾아보게 한다	2.92	8
어휘표를 참고하여 알게 한다	2.44	10
교사가 바로 가르쳐 준다	3.14	6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준다	3.52	4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설명해 준다	2.80	9
친구에게 뜻을 물어보아 알아내게 한다	2.08	12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내게 한다	2.20	11
전체 평균	3.08	

<표 21>에서 보듯이 교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본문의 문맥을 통해 추측하도록 가르친다’(3.90)와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알게 한다’(3.76)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습한 어휘를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상황이나 본문의 문맥을 통해 어휘를 습득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문맥 어휘지도 방법을 강조했던 학자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점이다.

<표 22>는 현재 교사가 사용하는 강화전략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표 22> 교수 강화 전략

전 략	평균	순위
친구들과 함께 익히고 연습하게 한다	2.46	23
원어민과 함께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갖도록 돕는다	2.22	26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우게 한다	2.44	25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익히도록 가르친다	2.70	22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지어 익히게 한다	3.36	11
동의어나 반의어를 함께 적어주면서 익히게 한다	3.86	1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가르친다	3.08	15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보게 한다	2.88	19
단어의 철자를 익히게 한다	3.30	13
단어의 발음을 익히게 한다	3.76	2
단어를 큰소리로 말해 보게 한다	3.68	5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켜 익히도록 가르친다	2.76	21
단어에 밑줄을 그으며 익히도록 가르친다	2.80	20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히게 한다	3.42	8
품사를 암기하도록 가르친다	2.96	17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보게 한다	3.28	14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히게 한다	3.74	3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게 한다	2.46	23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하면서 외우게 한다	3.68	6
단어를 반복해서 써보며 익히게 한다	3.32	12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히도록 가르친다	3.38	10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함께 풀며 익히게 한다	3.40	9
녹음테이프로 어휘목록을 들려주며 익히도록 돕는다	3.08	15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하여 가르친다	2.96	17
단어시험을 통해 재확인하고 익혀나가도록 돕는다	3.70	4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히도록 가르친다	3.70	4
전체 평균	3.17	

교사가 학생들에게 뜻을 알게 된 단어를 암기시키는 강화 전략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동의어나 반의어를 함께 적어주면서 익히게 한다’(3.86)이고 둘째로 ‘단어의 발음을 익히게 한다’(3.76)였다. 그 다음으로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히게 한다’(3.74), ‘단어시험을 통해 재확인하고 익혀나가도록 돕는다’(3.70),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히도록 가르친다’(3.70)는 전략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휘 강화 전략은 ‘동의어, 반의어를 연관지어 외우게 한다’인데 이 전략은 의미장 접근법에 속하는 것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의미장은 의미적 단일체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집단으로, 그 특징은 단어들이 계층적으로 나타나며 이 때 그 어휘들의 의미구조를 언어학적인 면에서 보면 동의 관계, 반의 관계, 하위 관계, 연어 관계로 나타나며, 심리학적 면에서 보면 이런 의미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그물망으로 나타난다. 김현숙(1993)은 의미장 접근법의 유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수한 낱말을 서로 유연적인 관계에 의하여 의미 집단을 형성하여 기억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기억, 축척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한편 지도 전략으로 빈도가 낮은 ‘원어민과 의사 소통할 때 사용해 보게 한다’(2.22)는 항목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교사의 지도 전략에 대한 유용성 인식

<표 23>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새 단어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조사한 것이다.

<표 23> 교사 기대 발견 전략

전 략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평균	순위
품사를 알게 한다	3.66	6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알게 한다.	3.90	2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게 한다	3.74	4
본문의 문맥을 통해 추측하도록 가르친다	4.16	1
영한 사전에서 찾아보게 한다	3.50	8
영영 사전에서 찾아보게 한다	3.58	7
어휘표를 참고하여 알게 한다	3.00	10
교사가 바로 가르쳐 준다	2.66	12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준다	3.84	3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설명해 준다	3.74	4
친구에게 뜻을 물어보아 알아내게 한다	3.36	9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내게 한다	2.98	11
전체 평균	3.51	

교사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문맥을 통해 추측을 하게 한다’(4.16), ‘접사와 어근을 알게 한다’(3.90),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준다’(3.84)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가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교사가 바로 가르쳐 준다’(2.66)와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내게 한다’(2.98)였다. 구성주의 학습원리에 따라 모르는 어휘를 학습자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자 또한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한편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협동수업을 말하는데, 이는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때로는 협동수업의 방법을 동원해 재미있게 어휘지도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표 24>은 교사가 어휘 지도시 한 번 가르친 어휘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도록 돕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강화 전략을 조사한 것이다.

<표 24> 교사 기대 강화 전략

전 략	평균	순위
친구들과 함께 익히고 연습하게 한다	3.00	23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갖도록 돕는다	3.52	13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우게 한다	2.94	24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익히도록 가르친다	3.32	18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지어 익히게 한다	3.88	3
동의어나 반의어를 함께 적어주면서 익히게 한다	3.84	4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가르친다	3.40	17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보게 한다	3.78	6
단어의 철자를 익히게 한다	3.50	14
단어의 발음을 익히게 한다	3.84	4
단어를 큰소리로 말해 보게 한다	3.68	9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켜 익히도록 가르친다	3.12	21
단어에 밑줄을 그으며 익히도록 가르친다	2.84	25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히게 한다	3.72	7
품사를 암기하도록 가르친다	3.10	22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보게 한다	3.66	11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히게 한다	3.68	9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게 한다	2.90	26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하면서 외우게 한다	3.70	8
단어를 반복해서 써보며 익히게 한다	3.48	15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히도록 가르친다	3.30	19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함께 풀며 익히게 한다	3.20	20
녹음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들려주며 익히도록 돕는다	3.44	16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하여 가르친다	3.56	12
단어시험을 통해 재확인하고 익혀나가도록 돕는다	3.92	2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히도록 가르친다	4.06	1
전체 평균	3.48	

상위 5항목을 살펴보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히도록 가르친다’(4.06), ‘단어시험을 통해 재확인하고 익혀나가도록 돕는다’(3.92),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지어 익히게 한다’(3.88), ‘동의어나 반의어를 함께 적어주면서 익히게 한다’(3.84), ‘단어의 발음을 익히게 한다’(3.84)등이었다. 교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화전략을 나타낸 <표 23>과 비교해 보면, 교사

들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동의어나 반의어를 함께 적어 준다’와 ‘단어의 발음을 익히게 한다’등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히도록 가르친다’와 ‘단어시험을 통해 재확인하고 익혀나가도록 돕는다’는 것이었다. 반복을 통한 초인지 전략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Nation(1982)은 학습 후의 기억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직후, 1주, 3주, 8주간의 간격을 설정하여 망각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학습한 어휘의 기억 비율은 각각 66%, 48%, 39% 그리고 37%이었다. 새로운 어휘를 반복, 학습시키고자 할 경우 학습 후 즉시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한 번 배운 단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한 단어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노출시켜야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Jenkins와 Dixon(1983)은 어휘 학습을 위해 6~12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Nagy와 Herman(1987)은 “문맥 속에 있는 어휘”라면 단 한 번의 만남도 어휘와 그 의미에 관한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Brown과 Payne(1994)은 횟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3) 교사의 현재 사용 전략과 도움이 되는 정도의 인식 비교

<표 25>는 교사와 학생간의 발견전략 사용도 및 도움 인식정도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25> 학생과 교사간의 발견 전략 사용도 및 도움 인식 비교

전 략	현재 사용 방법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품사를 알아본다	2.34	9	3.74	3	2.98	7	3.66	6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분석해 본다	2.29	8	3.76	2	2.93	7	3.90	2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아낸다	2.76	4	3.14	6	3.26	3	3.74	4
본문의 문맥(전후 관계)을 통해 추측한다	3.60	2	3.90	1	3.88	1	4.16	1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	3.79	1	3.32	5	3.86	2	3.50	8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	1.88	12	2.92	8	3.24	4	3.58	7
어휘표를 참고한다	2.51	6	2.44	10	2.87	9	3.00	10
우리말 뜻을 교사에게 물어본다	2.64	5	3.14	6	2.83	12	2.66	12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다	2.03	9	3.52	4	2.87	9	3.84	3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1.98	10	2.80	9	3.11	5	3.74	4
친구에게 뜻을 물어 본다	3.57	3	2.08	12	3.05	6	3.36	9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낸다	1.98	10	2.20	11	2.85	11	2.98	11
전체 평균	2.60		3.08		3.14		3.51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맥을 통한 추측전략을 교사(3.90)와 학생(3.60) 모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친구에게 뜻을 물어본다’(3.57)는 전략은 교사가 가장 기피하는(2.08) 전략이다. 또한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는 전략은 학생, 교사 모두 현재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발견 전략 사용도(학생: 2.60, 교사: 3.08)와 도움 인식 정도(학생: 3.14, 교사: 3.51)를 비교해 보면 둘 다 학생보다는 교사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강화 전략 사용도 및 도움 인식 정도를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6>와 같다.

<표 26> 학생과 교사간의 강화 전략 사용도 및 도움 인식 비교

전 략	현재 사용 전략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학생	교사	학생	교사
친구들과 함께 단어를 익히고 연습한다	2.41 19	2.46 23	3.27 18	3.00 23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가진다	1.71 26	2.22 26	3.76 2	3.52 13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운다	2.28 23	2.44 25	3.22 19	2.94 24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본다	2.88 9	2.70 22	3.43 15	3.32 18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짓는다	3.07 4	3.36 11	3.57 12	3.88 3
동의어나 반의어를 연관지어 학습한다	2.87 10	3.86 1	3.59 11	3.84 4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	2.29 22	3.08 15	3.10 23	3.40 17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본다	2.40 20	2.88 19	3.33 17	3.78 6
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3.50 3	3.30 13	3.51 13	3.50 14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3.60 2	3.76 2	3.69 6	3.84 4
단어를 익힐 때 큰소리로 말해본다	3.03 7	3.68 6	3.65 8	3.68 9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킨다	2.83 12	2.76 21	3.21 20	3.12 21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3.03 7	2.80 20	3.02 24	2.84 25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힌다	2.46 17	3.42 8	2.81 26	3.72 7
품사를 암기한다	2.33 21	2.96 17	3.10 22	3.10 22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본다	2.51 16	3.28 14	3.48 14	3.66 11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	3.06 5	3.74 3	2.83 25	3.68 9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	2.14 25	2.46 23	3.68 7	2.90 26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	2.43 18	3.68 6	3.63 9	3.70 8
단어를 반복해서 써본다	3.66 1	3.32 12	3.62 10	3.48 15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힌다	2.85 18	3.38 10	3.15 21	3.30 19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풀어본다	2.63 15	3.40 9	3.34 16	3.20 20
녹음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듣는다	2.25 24	3.08 15	3.70 4	3.44 16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한다	2.67 14	2.96 17	3.70 4	3.56 12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	2.81 12	3.70 4	3.73 3	3.92 2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	3.04 6	3.70 4	3.86 1	4.06 1
전체 평균	2.72	3.17	3.14	3.48

교사가 현재 지도하는 전략과 학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략의 상위 5 항목을 비교해 보면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와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는 두 가지 항목만 일치할 뿐 나머지 항목들은 일치하지 않았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 정도에 있어서도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 나간다’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는 두 항목만 일치할

뿐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았다.

영어매체 및 원어민 활용에 대해 교사들은 강화전략 전체 26문항 중, 각각에 대해 2.96(17위)과 2.22(26위)라고 응답하였는데, 원어민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수능시험 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영어매체 활용이 적은 것 같다. 그러나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각각 3.56(12위)과 3.52(13위)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여건이 갖추어져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활용에 관한 학생 설문 조사에서도 실제 사용도는 1.71(26위)로 가장 낮았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3.76(2위)으로 매우 높았다. 학습자들이 가능한 한 원어민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어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와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접사와 어근을 가르친다’는 문항에 대해 교사들은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3.42, 8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도 3.72(7위)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 평가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실제 사용도에서 2.46(17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도 2.81(26위)로 나타났다. 교사가 어휘 교수 전략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학생들의 인식정도가 낮고,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접사와 어근을 통한 체계적인 어휘교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는 전략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면 학생들의 경우는 2.29(22위), 교사의 경우는 3.08(15위)로 나타났다으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 정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경우는 3.10(23위), 교사의 경우는 3.40(17위)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중요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어휘교수 전략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학생들의 경우 중요성과 효율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교사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어휘교수가 뒤따를 때 학생들은 마인드 맵의 가치와 효율성을 깨닫고 더욱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어휘 학습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4.2.4 학습자들간의 어휘학습 전략 비교

앞에서 우리는 학생과 교사들의 어휘 학습 및 지도 전략, 남, 여간의 어휘학습 전략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부산, 울산지역 고등학생과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간의 어휘학습 전략,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어휘학습 전략,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간의 어휘학습 전략에 있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간의 어휘학습 전략을 비교해 보겠다.

1)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간의 어휘 학습 전략 비교

<표 27>은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남, 여)간의 발견 전략 사용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7>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 지역간의 발견전략 사용 비교

연구자	이상우(부산, 울산)			박준언(서울, 경기)		
전략 순위	발 견 전 략			사 용 정 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	영한 사전 3.79	영한 사전 3.80	영한사전 3.79	영한 사전 86.7%	영한 사전 84.7%	영한사전 84.3%
2	문맥 3.60	문맥 3.56	친구 3.68	문맥 78.0%	문맥 68.0%	문맥 74.7%
3	친구 3.57	친구 3.49	문맥 3.64	친구 74.7%	친구 53.7%	친구 59.3%
11	예문, 그룹활동 1.98	그룹 활동 1.81	예문 요청 1.98	동의어 요청 14.0%	동의어 요청 19.3%	동의어 요청 14.3%
12	영영 사전 1.88	영영 사전 1.80	영영 사전 1.98(11)	예문 요청 6.0%	예문 요청 17.0%	예문 요청 12.3%

먼저 상위 3항목을 비교해 보면, 부산, 울산이나 서울, 경기지역 모두 ‘영한 사전’, ‘문맥’, ‘친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성별로 나눠 분석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서울, 경기와 부산, 울산 모두 ‘영한사전’, ‘문맥’, ‘친구’로서 똑같이 일치되고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견 전략은 둘 다 ‘영한 사전’으로 일치되고 있지만, 2-3위 항목에서 부산, 울산지역은 ‘친구’, ‘문맥’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는 ‘문맥’, ‘친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적게 사용하는 2개 항목의 발견 전략을 살펴보면 부산, 울산지역의 경우 ‘영영 사전’, ‘예문요청 및 그룹활동’ 순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경기지역은 ‘예문 요청’, ‘동의어 요청’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나눠 보면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발견전략으로 부산, 울산의 경우 남, 여 모두 ‘영영 사전’을 사용한다는 것인 반면,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는 남, 여 모두 ‘예문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적게 사용하는 전략으로는 부산, 울산의 경우 남자는 ‘그룹활동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알아낸다’는 것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예문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서울, 경기의 경우는 남, 여 모두

‘동의어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발견 전략 사용의 경우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지역 간에는 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8>은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간의 강화 전략 사용도를 비교하고 있다.

<표 28>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 지역간의 강화전략 사용 비교

연구자	이상우(부산, 울산)			박준언(서울, 경기)		
전략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강 화 전 략			사 용 도		
1	반복 쓰기	반복 쓰기	발음 익힘	큰소리로 읽기	큰소리로 읽기	발음 익힘
	3.66	3.70	3.50	71.3%	72.0%	81.0%
2	발음 익힘	발음 익힘	반복 외움	발음 익힘	발음 익힘	쉬운 단어
	3.60	3.68	3.40	69.3%	69.3%	77.7%
3	철자 익힘	반복 외움	반복 쓰기	철자 익힘	철자 익힘	철자 익힘
	3.50	3.46	3.36	67.3%	65.3%	75.7%
25	몸짓 표현	몸짓 표현	그림	그림	몸짓 표현	몸짓 표현
	2.14	1.92	2.27	7.3%	12.0%	14.0%
26	원어민	원어민	원어민	밀줄	밀줄	밀줄
	1.71	1.71	1.70	4.7%	11.0%	10.0%

먼저 상위 3항목을 비교해 보면 부산, 울산의 경우 ‘반복 쓰기’, ‘발음 익힘’, ‘철자 익힘’ 순이며, 서울, 경기의 경우는 ‘큰소리로 읽기’, ‘발음 익힘’, ‘철자 익힘’ 순으로 나타났다. 3항목 중 2항은 일치하였다. 하지만 부산, 울산지역 학생들은 한번 배운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반복 쓰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서울, 경기지역 학생들은 ‘큰소리로 읽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부산, 울산지역 학생의 경우 인지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서울, 경기지역 학생의 경우는 기억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가장 적게 사용하는 2개 항목을 살펴보면, 부산, 울산은 ‘원어민

과의 대화'와 '몸짓 표현'인 반면 서울, 경기도는 '밀줄 긋기'와 '그림으로 표현하기'였다. 강화 전략 사용도에 있어서도 지역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9>는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도지역 고등학생간의 발견전략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표 29>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 지역간의 발견 전략 도움 인식 비교

연구자	이상우(부산, 울산)			박준언(서울, 경기)		
전략	발 건 전 략			도 움 정 도		
순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	문맥	영한 사전	문맥	문맥	영한 사전	영한 사전
	3.88	3.84	3.95	76%	75.3%	67.0%
2	영한 사전	문맥	영한 사전	영한 사전	문맥	영영 사전
	3.86	3.82	3.90	72%	45.5%	52.7%
3	제스처와 그림	예문	제스처와 그림	접사, 어근	교사	문맥
	3.26	3.28	3.67	50.7%	42.7%	50.3%
11	그룹 활동	제스처와 그림	영영 사전	교사에게 질문	영영 사전	제스처와 그림
	2.85	3.18	3.41	24.0%	41.0%	40.0%
12	교사에게 질문	친구	예문	동의어 요청	제스처와 그림	접사, 어근
	2.83	3.14	3.14	22.0%	38.0%	39.7%

먼저 상위 3항목을 비교해 보면,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 모두 '문맥', '영한 사전'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 번째 항목에 있어 부산, 울산은 '제스처와 그림'을 사용하는 전략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 경기도는 '접사와 어근'을 사용한다는 전략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한

편 가장 적게 도움이 되는 2개 항목을 비교해 보면, 부산, 울산은 ‘그룹 활동’과 ‘교사에게 질문한다’인 반면 서울, 경기도는 ‘교사에게 질문한다’와 ‘동의어를 요청’한다는 전략이었다.

성별의 분류에 따른 비교에서는, 특히 여학생의 경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위 3항목을 비교해 보면 부산, 울산의 경우는 ‘문맥’, ‘영한 사전’, ‘제스처와 그림’ 순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 경기도는 ‘영한 사전’, ‘영영 사전’, ‘문맥’ 순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서울, 경기지역 여학생들의 경우 ‘영영 사전을 이용한다’는 결정전략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영영 사전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영영 사전이 발견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결과여서 주목할만하다.

<표 30>는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간의 한번 배운 어휘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강화 전략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표 30> 부산, 울산과 서울, 경기 지역간의 강화 전략 도움 인식 비교

연구자	이상우(부산, 울산)			박준언(서울, 경기)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강 화 전 략			도 움 정 도		
1	주기적 반복	주기적 반복	원어민	주기적 반복	주기적 반복	원어민
	3.86	4.01	3.79	47.3%	45.7%	50.7%
2	원어민	단어 시험	영어매체	영어 매체	원어민	영어매체
	3.76	3.76	3.73	42.0%	37.7%	43.3%
3	단어 시험	원어민	단어 시험	원어민	큰소리로 읽기	주기적 반복
	3.73	3.74	3.69	39.3%	34.3%	41.7%
25	숙어 함께	품사 암기	몸짓 표현	품사, 단어장	몸짓 표현	품사 암기
	2.83	2.86	2.95	3.3%	3.3%	4.3%
26	접사와 어근	몸짓 표현	품사 암기	밑줄 긋기	품사 암기	단어장
	2.81	2.74	2.76	0.7%	3.0%	2.3%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강화전략을 보면, 부산, 울산이나 서울, 경기 모두 '주기적 반복' 전략이었다. 2~3위 항목을 보면 부산, 울산은 '원어민과 대화' 및 '단어 시험'을 통한 전략인 반면, 서울, 경기는 '영어 매체' 및 '원어민'과의 대화를 통한 전략이었다.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세분해서 분석해 보면, 특히 여학생의 경우, 부산, 울산과 서울과 경기 모두 원어민과의 대화와 영어매체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암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부산과 울산, 서울과 경기 모두 주기적인 반복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부산과 울산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접사와 어근을 익힌다', '몸짓 표현', '품사 암기' 등이었으며,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는 '밑줄을 긋는다', '품사 암기', '단어장 이용'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부산과 울산, 서울과 경기 지역간의 비교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유사한 점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수준 높은 전략을 사용하는 면에서는 서울, 경기가 부산, 울산보다 조금 앞서는 면이 있었다.

2) 고등학생과 중학생 학습자간의 어휘 학습 전략 비교

이 장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습자간의 어휘 학습 전략을 비교 분석해 보고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표 31>은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어휘 발견 전략 사용도를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다.

<표 31>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습자간의 발견 전략 사용도 비교

연구자	이상우(고등학교 2학년)			황영금(중학교 3학년)		
전략	발 건 전 략			사 용 정 도		
순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1	영한 사전 3.79	영한 사전 3.80	영한 사전 3.79	친구 3.95	친구 3.84	친구 4.08
2	문맥 3.60	문맥 3.56	친구 3.68	문맥 3.40	문맥 3.50	영한 사전 3.53
3	친구 3.57	친구 3.49	문맥 3.64	그림, 동작 3.40(2)	동작, 그림 3.36	동작, 그림 3.44
11	그룹활동 1.98	그룹 활동 1.81	예문 요청 1.98	접사, 어근 2.16	접사, 어근 2.46	예문 요청 1.90
12	영영 사전 1.88	영영 사전 1.80	영영 사전 1.98(11)	영영 사전 1.99	영영 사전 2.01	접사, 어근 1.84

고등학생의 경우 모르는 어휘를 처리하기 위해 ‘영한사전을 가장 많이 사용’(3.79)하고 있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전략’(3.95)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아직 체계적인 어휘학습 전략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으로 사전을 찾아보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시절과는 달리 어휘수준이 높아졌고, 다양한 모의 고사를 치르고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어휘학습 체계가 갖추어짐으로 사전이용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상위 2번째 항목은 중·고등학생 모두 ‘문맥을 이용한다’로 동일하지만, 3번째 항목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친구에게 물어본다’(3.57)인 반면, 중학생들의 경우는 ‘유용한 그림이나 चेस्처를 이용하는 방법’(3.40)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시준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상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모

두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발견 전략은 ‘영영 사전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중학생:1.99 ; 고등학생:1.88).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중등 학습자들은 영영 사전 이용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영영 사전 이용이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경우, 영영 사전 이용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한 사전 이용에 익숙해져 있다.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7차 영어교육과정과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학습자들에게도 영영 사전 이용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사전이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사들의 어휘교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표 32>는 중등학습자들이 한번 배운 어휘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휘 강화 전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32>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습자간의 강화 전략 사용도 비교

연구자	이상우(고등학교 2학년)			황영금(중학교3학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략	강화전략 사용 정도					
1	반복 쓰기 3.66	반복 쓰기 3.70	발음 익힘 3.50	반복 쓰기 4.29	철자 익힘 4.24	반복 쓰기 4.43
2	발음 익힘 3.60	발음 익힘 3.68	반복 외움 3.40	철자 익힘 4.21	발음 익힘 4.22	철자 익힘 4.19
3	철자 익힘 3.50	반복 외움 3.46	반복 쓰기 3.36	발음 익힘 4.16	반복 쓰기 4.17	발음 익힘 4.10
25	몸짓 표현 2.14	몸짓 표현 1.92	그림 2.27	몸짓, 밑줄 1.83	몸짓 표현 1.79	밑줄 긋기 1.78
26	원어민 1.71	원어민 1.71	원어민 1.70	마인드 맵 1.60	마인드 맵 1.66	마인드 맵 1.54

상위 3항목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반복 쓰기’, ‘발음 익힘’, ‘철자 익힘’등 인지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 전

략은 글로 쓰거나 말을 하는 반복, 즉 반복적으로 계속 쓰거나 말하는 행동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전략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전략이다. 인지적 전략은 매우 확고한 방법으로 학생들은 인지적 전략을 다른 전략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한다(O'Malley & Chamot, 1990). 한편 학생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강화 전략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들의 경우 '원어민과의 대화'(1.71)라고 응답하였고, 중학생의 경우는 '마인드 맵'(1.60)이라고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원어민과 접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중학생의 경우 아직까지 마인드 맵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에서도 영어 어휘지도의 경우 '마인드 맵'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 학습자간의 어휘 학습 전략 비교

Schmitt(1997)가 일본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휘학습 설문조사는 최근에 실시된 대표적인 어휘학습 설문조사로 잘 알려져 있다. EE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과 일본 고등학습자들간의 어휘학습 전략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인의 연구와 일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chmitt(1997) 연구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

<표 33>은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들이 모르는 어휘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발견 전략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33>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간의 발견전략 사용도 비교

연구자	이상우(2003)	Schmitt(1997)
전략	발견 전략	사용 정도
1	영한 사전을 이용한다 3.79	영일 사전을 이용한다 73%
2	문맥을 통해 추측해본다 3.60	문맥을 통해 추측해본다 69%
3	친구에게 물어본다 3.57	친구에게 물어본다 67%

상위 3항목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양국 모두 1~3위가 ‘이중 언어사전을 이용한다’, ‘문맥을 통해 추측해본다’, ‘친구에게 물어본다’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양국 모두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이중언어 사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문맥을 통한 추측’과 ‘친구에게 물어보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지전략에 아직 능숙하지 못한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문맥을 이용한 학습보다는 이중언어 사전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4>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한번 배운 단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화전략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표 34>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간의 강화전략 사용도 비교

연구자	이상우(2003)	Schmitt(1997)
전략	강화 전략 사용도	
1	반복 쓰기 3.66	반복 쓰기 89%
2	발음 익힘 3.60	철자 익힘 77%
3	철자 익힘 3.50	교과서 이용 57%
4	개인 경험 연관 3.07	단어의 영상화 47%
5	숙어숙 단어 함께 암기 3.06	개인적 경험과 연관 33%

상위 5항목을 서로 비교해 보면 ‘반복 쓰기 전략’을 양국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 5항목 중 3개의 항목이 서로 일치되고 있다. 학습자들은 단어의 철자를 반복해서 쓰거나, 익히는 등 단어 그 자체와 관련된 기억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Nattinger(1988)는 어휘 항목을 기억하는 데는 의미보다도 형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특별한 어휘 형태를 먼저 보거나 듣고 난 후에 어휘의 의미를 기억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어휘를 이해하는 과정에는 형태가 의미에 이르는 주된 통로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휘 학습에서 형태적인 특성의 연구는 그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잘 활용하게 되면 어휘의 기억과 회상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 사이에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인 동질성과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운다는 점에 있어서의 일치로 매우 유사한 어휘 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4.3 논의

앞에서 우리는 수능 기출 어휘분석과 어휘 학습 및 교수 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분석하고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장에서는 수능 기출 어휘분석에 따른 효과적인 자료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드러난 어휘 학습 및 교수 전략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어휘 학습 및 교수 전략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수능 기출 어휘분석에 따른 논의

수능 기출 어휘자료의 분석 결과와 중요성,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어휘는 의사소통 능력의 중심이요 듣기와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효과적인 어휘학습 전략을 가진자가 듣기와 독해에서도 고득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수능 기출 어휘분석자료 그 자체가 수능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유익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수능시험에서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어휘들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며, 매년 2~300개 정도의 새 어휘들이 매년 추가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출제된 수능 기출 어휘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체 3,102개의 어휘 중 58.5%의 어휘들만이 기본 어휘 표에서 출제되었고, 41.5%의 어휘들은 기본 어휘표 이외에서 출제되었다.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어휘표에 나오는 어휘들을 충실히 익혀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출제된 주요 어휘들을 철저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문맥을 활용하거나, 접사나 어근을 이용하는 방법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고, 효과적인 독해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는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361개의 기본 어휘들도 충실히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비록 수능시험 어휘기준이 공통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 어휘표를 벗어나는 어휘들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고 2~3학년 교과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휘들도 꼼꼼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수능 기출 어휘들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단어장을 만들어 주고 주기적으로 단어시험을 치게 하거나 마인드 맵이나 의미장 학습법,

어원과 문맥을 이용한 다양한 교수전략을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2.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논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어휘학습 및 어휘교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어휘학습 및 교수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1) 어휘학습 및 어휘교수의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학생들의 경우, 첫째, 영영 사전에 대한 활용이 부족했다. 학생들은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는 전략’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영영 사전에 대한 교사들의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어휘력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때문이라 여겨진다. 둘째, 원어민 활용에 관한 문제다. 학생들은 ‘원어민과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가진다는 전략’이 어휘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였지만, 실제 사용도에 있어서는 가장 낮았다. 이는 원어민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셋째, 마인드 맵과 접사와 어근을 이용하는 어휘학습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는 것이다. 마인드 맵 학습법이나 접사와 어근을 이용하는 의미장 학습법은 현대 영어 어휘교육에 있어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어휘교수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치나 효용도 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어휘학습방법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어휘를 교수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법으로만 어휘를 교수하고 있는 교사들의 영향

또한 큰 것 같다.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어휘교수를 위한 교사들의 연구와 지도가 요망된다. 넷째, 학생들의 어휘학습 전략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휘학습을 위해 주로 단어자체의 철자와 관련된 반복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반복전략은 여러 학자들이 인정하듯 가장 효과적인 어휘학습 방법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어휘학습 전략이 다양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어휘학습 전략 사용도는 2.67로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사의 어휘교수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접사와 어근을 이용한 교수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가르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학생들의 사용도는 2.19로서 매우 낮았다. 이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어휘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둘째, 영영 사전 이용에 대한 교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영 사전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전략’ 사용은 2.92(8/12위)로서 매우 낮다. 셋째, 교사의 어휘교수 전략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맥을 통해 알게 한다’, ‘동의어나 반의어를 함께 적어준다’, ‘단어의 발음을 익히게 한다’, ‘주기적인 반복이나 단어시험을 통해 익혀나가도록 돕는다’는 전략들은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들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어휘교수 방법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교사는 ‘영영 사전을 이용하여 가르친다’, ‘영어매체를 이용하여 가르친다’,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가르친다’, ‘원어민과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갖도록 돕는다’등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어휘 교수법을 이용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효과적인 어휘학습 및 교수전략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하

고 교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효과적인 어휘학습 전략부터 살펴보자.

앞서 학생들의 어휘학습 전략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발견전략으로 가장 효과적인 어휘학습 전략은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다. Finocchiaro(1964), Judd(1978), McKeown(1985), Twaddell(1973)과 같은 학자들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모든 어휘를 다 학습할 수 없고, 항상 새로운 단어에 부딪칠 때가 많음으로, 항상 사전을 찾기보다는 문맥을 통해 의미를 추론해 보는 능력을 키워가고, 추론을 통해 다의적인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갈 때 보다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의사소통을 주목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날 영어교육의 현장에서는 ‘영영 사전을 이용한다는 전략’ 또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 생각된다. 물론 영영 사전의 경우, 초보자나 어휘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영영 사전 이용을 늘려갈 때,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된 많은 예문을 익히며, 많은 동의어나 숙어들도 익혀갈 수 있다. 영어로 쓰여진 원문에 대한 적응도와 자신감이 늘어가고, 원문 읽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강화전략으로 가장 효과적인 어휘학습 전략중의 하나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기적인 반복’ 학습이다. 사람이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절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앞서 Nation(1982)의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달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63%는 잊혀지고 만다. 학습 직후에 바로 복습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한번 배운 단어를 몇 번 반복해 주기만 하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영원히 살아있는 어휘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 다른 효과적인 강화전략으로는 ‘영어매체를 이용한다’,

‘원어민과 함께 의사 소통할 기회를 가진다’, ‘접사와 어근을 익힌다’,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 ‘반복해서 쓰고 철자와 발음을 익히는 전략’들이 있다. 오늘날은 직접 외국에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과 다양한 영어매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다. Tape이나 CD-Rom, 원어방송이나 원어로 된 영화를 통해 얼마든지 원어민 화자의 음성을 듣고, 정확한 발음과 쓰임새를 익힐 수 있다. 하지만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며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어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접사와 어근을 이용하는 전략’이나 ‘마인드 맵을 이용하는 전략’들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 잘 활용하기만 하면 엄청난 어휘력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반복해서 쓰고 철자와 발음을 익히는 전략’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매우 효과적인 전략중의 하나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어휘교수 전략을 알아보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휘를 지도할 수 있는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발견 전략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문맥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전략’이 있다. ‘영영 사전을 이용하거나 접사와 어근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전략’ 또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둘째, 강화전략에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이용하여 가르치는 전략’이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히도록 가르친다’, ‘영어매체를 이용하여 가르친다’,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갖도록 가르친다’,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가르친다는 전략’ 또한 매우 효과적이다. ‘동의어나 반의어를 이용하여 가르치는 전략’은 의미장 학습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각각의 단어를 따로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않고 전체적인 조직과 체계 속에서 익히게 함으로 오랫동안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도록 돕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전략’ 또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법을 개발하고, 분석력과 종합력, 문제 해결력

과 의사 결정력 등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 줌으로, 짧은 시간에 쉽고 재미있고 능률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어휘학습 전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능 기출 어휘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특징들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고등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전략과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어휘를 지도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능 기출 어휘분석 자료와 어휘학습 및 교수분석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는 효과적인 고등학생 어휘교수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과제 1에서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의 수능기출 어휘 문제를 분석하였다. 국민공통 기본 어휘표에 속하는 어휘들이 수능시험에 출제된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3,102개의 수능 기출 어휘 중에서 1,706개, 58.5%가 기본 어휘표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67개의 기본 어휘표에는 속해 있으나 아직 한번도 출제되지 않은 어휘는 361개로 이는 16.5%에 해당하였다. 어휘별 빈도수 및 순위에서는 1위는 정관사 the로서 2,209회 사용되었고, 상위 50위에 들어가는 어휘들의 경우 72%가 기능어, 28%가 내용어에 해당하였다. 듣기와 독해 어휘의 경우 듣기 어휘가 훨씬 더 내용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글의 종류, 목적, 분위기 및 태도 관련 어로는 뉴스(24회), thanking(62회), lonely(15회), cold(11회)등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주요 담화 연결어로는 so(102회), because(85회), however(56회), still(35회), in fact(16회), for example(32회), that is(16회) 등이 많이 출제되었다. 주요 동사, 형용사, 부사, 명사, 다의어를 살펴보면, cause(10회), relax(9회), serious(15회), sometimes(32회), technology(14회), economy(14회), medicine(9회), environment(9회), face(15회) 등이 많이 출제되었다.

둘째, 연구과제 2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어휘 학습 및 지도전략을 살펴보고, 박준언(2001), 황영금(2002), Schmitt(1997)의 연구와 비교분석 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발견 전략은 영한 사전과 문맥을 통한 학습이었으며, 강화전략의 경우는 반복해서 쓰기와 주기적인 반복학습이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전략 사용도가 조금 더 높고

다양하였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섬세하고 구체적이며 동작이 수반되는 초인지, 사회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발견전략은 문맥을 통한 지도이며, 강화전략의 경우 동의어, 반의어를 이용한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기적인 반복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박준연(2001), 황영금(2002), Schmitt(1997)와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 울산지역과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 사이에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산, 울산에 비해 서울, 경기지역 학생들이 초인지 전략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였다. 중학생들은 단순 암기 전략과 사회전략을 많이 사용한 반면, 고등학생들은 사전을 많이 사용하고 보다 다양한 어휘학습 전략을 구사하였다. 끝으로 한국과 일본 학습자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연구과제 3에서는 어휘 학습 및 교수전략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어휘학습 및 교수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문제점을 살펴보면, 어휘학습 및 교수전략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과, 영영 사전 및 원어민 활용이 부족하며, 창의적인 마인드 맵 과 접사와 어근을 이용한 방법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하기 위한 발견전략으로는 문맥과 영영 사전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었고, 강화전략으로는 주기적인 반복과 영어매체 활용, 원어민과의 대화 및 접사와 어근을 이용하는 방법, 마인드 맵, 반복 쓰기, 철자와 발음을 익히는 전략들이 있었다. 효과적으로 어휘를 교수하기 위한 발견전략으로는 문맥과 영영 사전, 접사와 어근을 활용하여 가르치는 전략들이 있었고, 강화전략으로 동의어와 반의어, 주기적인 반복과 영어매체 활용, 원어민과의 대화 및 마인드 맵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수능 주요 어휘들과 효과적인 어휘학습 및 교수전략을 살펴보았다. 어휘력의 발전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기반이 된다. 효과

적인 어휘학습을 위해서는 주요 어휘 파악 및 체계적인 어휘지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자료분석과 전략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어휘학습과 교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고등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휘분석 자료와 효율적인 어휘학습 및 교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활용됨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외국어(영어)*. (주) 대한 교과서
-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 과정(Ⅱ) 외국어(영어)*. (주) 대한교과서
- 김영숙. (2002). *초등영어 어휘교육*.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영어 교육총서. 한국문화사.
- 박해순. (1995). *영어 어휘의 의미망을 통한 독해력 신장에 관한 연구/韓國敎員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2000). *효과적인 영어 어휘교육에 관한 연구: 중등학교 영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자. (1996). 중. 고등학생의 영어 어휘적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 *영어교육*, 51(2), 77-105
- 전인재. (2001). *고등학생의 영어 어휘력과 어휘학습전략 사용의 관계 연구*. 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영금. (2002). *중학생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과 성취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hmed, M. O. (1989).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P. Meara (Ed.), *Beyond words* (pp. 3-14). London: CILT.
- Bachman.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haydt, L. (1987). The semantization of vocabulary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System*, 15, 55-67.
- Bialystok, E. (1987). Development of word concept by bilingual childre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9, 133-140.

- Brown, C. (1993). Factors affecting the acquisition of vocabulary: Frequency and saliency of words. In T. Huckin, M. Haynes, & J. Coady (Eds.), *Second language and vocabulary learning* (pp. 263-288).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
- Brown, C. & Hatch, E. (1995). *Vocabulary, semantics and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H. D. (1972). Cognitive pruning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dern Language Journal*, 56, 218-222.
- Buzan, T. (1990). *The Mind Map Book*. 라명화(역), 서울: 평범사.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Chamot, A. U. & Rubin, J. (1994). Comments on Janie Rees-Miller's 'A critical appraisal of learner training: Theoretical bases and teaching implications.' Two readers react... *TESOL Quarterly*, 28(4), 771-776.
- Clarke, D. F. & Nation, I. S. (1980). Guessing the meanings of words from context: Strategy and techniques. *System*, 8(3), 211-220.
- Coady, J. & Huckin, T. (1997).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A. D. & Aphek, E. (1980). Retention of second-language vocabulary over time: Investigating the role of mnemonic association. *System*, 8(3), 221-235.
- Dansereau, D. F. (1988). Cooperative learning strategies. In C. E.

- Weinstein, E. T. Goetz and P. A. Alexander (Eds.), *Learning and study strategies: Issues in assessment, instruction, and evalu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Donley, M. (1974). The role of structural semantics in expanding and activating the vocabulary of the advanced learner: The example of the homophone. *Audio-Visual Language Journal*, 12(2), 81-89.
- Ehrman, M. & Oxford, R. (1989). Effects of sex differences, career choice, and psychological type on adult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Modern Language Journal*, 73, 1-13.
- Finocchiaro, M. (1964).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rom theory to principle*. Regent Pub Co.
- Goulden, R., Nation, P., & Read, J. (1990). How large can a receptive vocabulary be? *Applied Linguistics*, 11(4), pp. 341-363.
- Heimlich, J. E. & Pittleman, S. D. (1986). *Semantic mapping classroom applications*.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Higgs, Theodore V., & Clifford, Kay T. (1982). The push toward communication. In V. Higgs (Ed.), *Curriculum, competence, and the foreign language teacher. ACTFL Foreign Language Education Series, Vol. 13*.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
- Jenkins, J. R. & Dixon, R., (1983). Vocabulary learning.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8, 237-260.
- Jenkins, J. R., Pany, D., & Schreck, J. (1978). *Vocabulary and reading*

- Comprehension: Instructional effects*. Urbana, Ill: Center for the Study of Reading, University of Illinois.
- Judd, E. L. (1978). Vocabulary teaching and TESOL: A need for reevaluation of existing assumption. *TESOL Quarterly*, 12(1).
- Krakowian, B. (1984). The teacher's mediation in students vocabulary. *language learning*, 23(2): Acoustic and Semantic Parameters.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 Krashen, S. (1989). We acquire vocabulary and spelling by reading: Additional evidence for the input hypothesis. *Modern Language Journal*, 73(4), 440-464.
- Krashen, S. D. & Terrell, T. D.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Pergamon Press.
- Kruse, A. F. (1979). Vocabulary in context.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33(3), 207-213.
- Lane, S. (1991). Implications of cognitive psychology for measurement and testing: Assessing students' knowledge structures.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0(1), 31-33.
- Lehrer, A. (1974). *Semantic fields and lexical structure*. Amsterdam: North Holland Pub Co.
- Levin, J. R. (1983). Pictorial strategies for school learning: Practical illustrations. In M. Pressley and J. Levin (Eds.) *Cognitive Strategy Research*. New York: Springer Verlag.
- Lord, R. (1974). Learning vocabulary. *IRAL*, 12, 239-247.
- Ludwig, J. (1984). Vocabulary acquisition as a function of word

- characteristics.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40(4), 5-52.
- McKeown, M. G., Beck, I. L., Omanson, R. C. & Pople, M. T. (1985). Some effects of the nature and frequency of vocabulary instruction on the knowledge and use of word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0, 522-535.
- Mikulecky, B. (1990). *A short course in teaching reading skills*. Reading, MA: Addison Wesley.
- Milton, J. & Meara, P. M. (1995). How periods abroad affect vocabulary growth in a foreign language. *ITL 107-108*: 17-34.
- Nagy, W. E., Anderson, R. C. & Herman, P. (1987). Learning word meanings from context during normal read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4, 237-270.
- Nation, I. S. P. (1977). The combining arrangement: Some techniqu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1(3), 89-94. Reprinted in *English Teaching Forum*, 17(1) (1979). 12-16.
- Nation, I. S. P. (1982). Beginning to learn foreign vocabulary: A review of the research. *RELC Journal*, 13(1), 14-36.
- Nattinger, J. (1988). Some current trends in vocabulary teaching. In R. Carter & M. McCarthy (Eds.).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Ogden, C. K. (1930). *Basic English: A general introduction*. London: Kegan Paul.
- Ogden, C. K. (1968). *Basic English: International second language*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 Omaggio, A. (1979). Pictures and second language comprehension: Do they help? *Foreign Language Annals*, 12, 107-116.
- O'Malley, J.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R.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Boston: Newbury House.
- Oxford, R. L. & Crookall, D. (1990). Vocabulary learning: A critical analysis of techniques. *TESL Canada Journal*, 7, 9-30.
- Park, J-E. (2001). Korean EFL learners'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English Teaching*, 56(4), 3-30.
- Paivio, A. (1983). Strategies in language learning. In M. Pressley and J. Levin (Eds.). *Cognitive Strategy Research*. New York: Springer Verlag.
- Pavio, A. & A. Desrochers. (1981). Mnemonic techniqu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6), 780-795.
- Politzer, R. & McGroarty, M. (1985). An exploratory study of learn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hip to gains in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TESOL Quartely*, 19, 103-123.
- Read, J. (2000). *Assessing vocabul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ltz, E. & Donnenwerth-Nolan. S. (1981). Does motoric imagery facilitate memory for sentences? A selective interference test.

- Journal of Verbal Behavior and Verbal Learning*, 20, 322-332.
- Sanaoui, R. (1995). Adult learners' approaches to learning vocabulary in second languages. *Modern Language Journal*, 79, 15-28.
- Schatz, E. K. & Baldwin, R. S. (1986). Context clues are unreliable predictors of word meaning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 439-453.
- Schmitt, N. (1997).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N. Schmitt & M. McCarthy (Eds.),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pp. 199-22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mitt, N. (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l, B. D. (199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In M. C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2nd ed., pp. 296-311).
- Skehan, P. (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Steingart, S. K. & Glock, M. D. (1979). Imagery and the recall of connected discourse. *Reading Research Quarterly*, 15(1), 66-83.
- Sternberg, R. (1987). Most vocabulary is learned from context. In M. G. McKeown & M. E. Curtis (Eds.), *The nature of vocabulary acquisition* (pp. 89-10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aylor, L. (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Hertfordshire: Prentice Hall.

- Thorndike, E. L. & Lodge, I. (1944). *The teacher's wordbook of 30,000 words*. Columbia, SC: Columbia University press.
- Twaddell, F. (1973). Vocabulary expansion in the TESOL classroom. *TESOL Quarterly*, 7(1), 61-78.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L. S. (1986). *Language and thought*. New York: Plenum Press.
- West, M. P. (1953). *A general service list of English words*. New York: Longman.
- West, M. P. (1960). *Minimum adequate vocabulary*. Longman.
- Wilkins, D. A. (1972).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Edward Arnold.

부록 1

수능 출제 어휘표

A)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어휘들

appointment, abandon, abruptly, abstract, absurd, accompany, accomplishment, accustom, acquire, acres, activation, actual, adapt, adolescence, adulthood, advertise, afflict, afford, afterward, agency, agriculture, aid, aircraft, algebraic, ally, alternative, altogether, analysis, antenna, anticipate, anymore, anyway, anywhere, apartment, applaud, appliance, approve, arose, arrow, aside, aspirin, assembly, asset, assuredly, assure, athlete, attic, autograph, automatically, automobile, average, await, background, backyard, banner, barbarism, barely, bargain, barriers, barter, baseball, basement, basic, basis, battery, beam, beard, beast, bench, bestseller, biologist, biology, biomechanical, biotechnology, bitter, blank, bliss, blond, blossom, blunder, blueprint, booklet, boon, boss, bough, bound, brake, brand, breakdown, breeze, brick, brilliant, brow, bucket, budget, bud, cabin, cafe, campus, candidate, capacity, cast, category, celebrity, cereal, certify, challenge, channel, champion, chant, chapter, chart, charter, cheat, chemical, childhood, chop, christmas, circus, civilize, classic, clay, climate, cloth, clothing, clover, co, coach, code, colony, comedian, comedy, command, companion, compensation, competent, compile, computer, conceal, conference, confirm, conflict, conform, congestion, conquer, conscious, consequence, conservation, constant, constitute, construct, consult,

consume, contemporary, contend, continent, contrary, conviction, convince, copper, cottage, cotton, counsel, courtesy, coworker, cradle, craft, crane, crash, criteria, crucial, crutch, curriculum, cushion, cyber, cycle, daily, data, decade, decay, decent, decline, dedicate, defective, define, deliver, democracy, depart, deprive, despair, desperately, despite, destination, destruction, detect, device, dictatorship, diesel, digestion, digital, diminish, dine, dip, discard, disc, discard, dismay, dismiss, disposable, disregard, disrespectful, dissatisfied, diversity, dollar, domestic, donation, doom, dormitory, drastic, dribble, drift, drought, drown, dust, dwell, dynamic, earnest, echo, ecosystem, editor, elderly, electronic, elegance, element, encounter, enforce, engage, enhance, enormous, enrich, enrollment, ensure, equation, era, essay, essential, establish, estimate, etc., eternal, ethical, ethnic, evaluate, evolve, excessive, exclaim, exhibit, exertion, expand, expel, expense, expert, explore, EXPO, expose, extinction, facility, falter, fame, famine, fantasy, fell, fiber, fiction, fierce, fishery, fisherman, filter, flu, fluffy, fluid, flush, flutter, foam, forever, foster, fragile, frankly, frown, frustrate, fulfill, fund, furthermore, fuzzy, gallery, gallon, gauge, gear, gene, genius, genre, geometry, ghost, giraffe, glacier, glance, glare, glitter, global, gloomy, goodwill, government, grace, grand, grandparent, graph, grasp, grave, graze, greed, guarantee, gust, habitat, handicap, handshake, hardship, hardware, handlebar, harmony, hasty, haul, hay, healer, heartfelt, hey, highlight, hike, historic, hitch, hmm, honorable, hoop, hotel, humanitarian, humanity, humble, humorous, hunter, icy, identical, ignorant, imaginative, imagination, IMF, impact, impersonal, imply,

impose, imprint, impressive, incentive, incident, indifferent, individualism, individualist, indoctrinate, infant, infinite, inflation, inhabit, ink, inner, innocent, inquire, insecure, insight, instance, instinct, insulate, intact, intellect, interaction, interfere, intermission, internal, interpret, intersection, interview, intolerable, irregularity, irresistible, ironic, isolation, jag, jasmine, jazz, journal, journalist, junk, justify, kilometer, kilos, knowledge, knowledgeable, landscape, lapse, last, latecomer, laughter, lawsuit, lawyer, leap, lease, lecture, legend, lenses, literacy, livestock, lizard, loaf, loan, lobster, locate, log, logic, logograph, lore, lounge, loyal, luxurious, maintain, majority, mall, malnutrition, manageable, mankind, manual, manufacturer, marathon, margin, marine, Mars, mart, maturational, mature, meadow, mechanic, medal, melody, merely, merit, mess, mysterious, mid, midst, midterm, miller, millionaire, mindedness, mine, ministry, minor, minority, miracle, mischief, misdeed, misleading, moderation, mode, monetary, monitor, monologue, motion, motivate, mount, mumble, mummy, musician, muse, mutual, myth, nap, natural, nearby, nearly, nearsighted, necessitate, necessity, nectar, neglect, neutral, nevertheless, newspaper, nigger, noble, non, nonetheless, northeastern, northwestern, notation, novelist, nowhere, nurture, nutrition, obedience, objective, obstacle, occupy, occurrence, offensive, olive, omit, online, onlooker, onto, openly, oppose, optimistic, option, orally, ordinary, organic, oriental, osteoporosis, otherwise, outcast, outdoor, outstanding, overconfident, overcrowd, overflow, overhear, overlook, overnight, overpopulation, overseas, overweight, overwhelm, oxygen, ozone, pace, panic, parade, paradise, parental, particle,

participate, partner, partly, party, passage, passion, passionate, passive, pat, patriotism, pavement, peak, peasant, pedestrian, pen, penalize, penniless, penny, penpal, per, performance, periodic, permission, personal, personality, personnel, phone, phrase, photographer, physician, physics, pianist, ping-pong, playfully, pleasant, pledge, plethora, poetic, poetry, polish, politician, politics, pond, popularity, porch, portion, pose, positive, possibility, potential, poverty, practicable, practical, preference, prejudice, preparation, preposition, preschooler, presentation, presidency, pressure, prevail, prevention, preventative, pride, primitive, princess, prior, priority, privacy, proceed, product, productive, productivity, professional, professor, programmer, progressively, profitable, profoundly, prohibit, promising, promote, promotion, pronunciation, propriety, prosper, protection, psychological, psychologist, publicity, pump, punch, purity, quack, qualification, questionnaire, quicken, racial, racket, radical, rail, rainy, ramp, ranch, rare, rarely, rational, ray, razor, reaction, reactive, realistic, reality, really, reap, rearrange, reasonable, rebuild, recall, reception, recite, recommendation, recovery, recreational, recruitment, recycle, reflect, refresh, regional, register, regularity, reinstall, relaxation, reliant, relief, relieve, religious, rely, remarkable, remembrance, render, renew, renowned, repeatedly, reproduce, representative, republic, rescue, resentful, reservation, residence, resort, resourcefulness, respectable, respiration, respond, respondent, response, responsibility, restriction, resume, retailer, retired, retiree, retreat, reunion, reuse, revengeful, reverse, revise, revolution, reward, rhythm, rid, rigid, ripen, rite, ritual, rival, romance, root, rotten, rural, rustle, sacrifice, safety, sake, sale,

salty, sanitation, satisfy, satisfaction, sauce, scan, scandal, scarcity, scare, scary, scenery, scent, scholar, scholarship, scientific, scientist, scream, seal, seascape, seaweed, secretary, secure, security, seek, seemingly, seldom, select, selection, self, semester, sensitive, separately, sequence, sermon, service, session, settlement, sex, shadow, shame, sharp, shepherd, shortcut, shortage, shot, shrimp, shutter, shuttle, sigh, sightseeing, sign, significance, silent, similarity, simplistic, sincerity, site, skid, slam, slat, slave, sleeper, sleeplessness, sleepy, smog, snap, snowy, soak, sociable, sociologist, software, solar, solemn, solitary, solution, someday, sometime, somehow, somewhat, sorrow, soul, sow, spacious, spank, spare, species, specialist, specialization, specialized, speech, spiritual, spite, splash, sponge, sport, sprout, squirrel, stadium, staff, startle, steak, stimulation, stink, stir, stock, stockpile, stopover, stormy, strain, strategy, stress, strengthen, strengths, stroke, studio, subconscious, subscription, substitute, subtle, subtract, success, suggestion, suitable, summarize, suitcase, sunny, sunrise, sunset, sunshine, superbly, supervise, supplement, survey, survival, suspect, suspicion, suspicious, suspend, sustain, sweep, swift, sword, symbolize, sympathize, symphony, tablet, tag, tale, tan, tank, taylor, technological, telescope, temperate, tempt, tenant, tendency, tender, tense, tension, terminal, terrific, therein, thermometer, text, theme, thigh, timetable, thoughtful, threaten, thrift, thrilling, throne, thump, thus, tide, tile, tin, tips, tolerate, tone, tornado, toss, tourist, tourism, tower, track, tradeoff, tradition, tragedy, trait, transfer, translator, transformation, transport, tremendous, trigger, trim, triple, triumph, triumphantly, trivial,

truthfulness, twice, type, ultimately, ultraviolet, umm, unaided, unavailable, unavoidable, unbearable, unborn, unchallenged, unchangeable, unchanged, uncovered, undoubtedly, unemployment, unexpected, unexpectedly, unfortunately, unhurried, unintentionally, unknown, unnecessarily, unopened, unpaid, unpleasant, unproductive, unrest, unrestricted, unskilled, unthinkable, untroubled, unusually, unwanted, unwillingness, uprooted, upstairs, upward, urban, utmost, vague, valuable, various, variety, VCR, ventilate, venture, versus, victim, violinist, virus, vision, visible, visualization, vitamin, vocabulary, volleyball, volunteer, volunteerism, warehouse, warmth, waterway, wavelength, wayfarer, weaken, wealthy, weed, weekend, weekly, weigh, welfare, western, whale, whaling, whenever, whereas, whereby, wherever, whistle, whizz, widen, wildlife, wilderness, willingly, winner, wisdom, witness, witty, workday, workforce, workplace, worship, wound, wreck, wretched, yearbook, yell, yellow, yes, yield, youngster, youth, zeal, zoological, zoology (1,035 어휘)

B)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 속해 있으나 아직 한번도 출제되지 않은 어휘들

accent, affair, alphabet, ambulance, amuse, ancestor, angel, angle, ankle, appropriate, approximate, army, arrest, assign, attach, autumn, awkward, ax/axe, badminton, baggage, bake, bald, balloon, band, barber, bat, beg, betray, beyond, billion, biscuit, bite, bless, boast, boil, boot, bowl, brave, bridge, broom, bug, bury, cabbage, calculate, calendar, cancel, candle, captain, career, carpenter, carrot, cartoon, cassette, casual, ceiling, chain,

chalk, charm, chat, cheek, chess, chest, chew, chin, cinema, clinic, clip, clown, comb, complicated, cookie, corn, correspond, cough, cream, credible, cruel, cucumber, cute, dairy, dam, damp, dare, dawn, deaf, dear, debate, debt, deceive, declare, deliberate, delicate, dessert, devil, diary, dictation, dig, disgusting, dispute, doll, dolphin, donkey, dozen, drawer, drug, dumb, eager, elbow, elevator, enthusiasm, envelope, errand, escalator, exit, eyebrow, fable, fax, false, familiar, fat, faucet, feast, feather, fee, fence, fist, flag, flame, flash, flavor, flesh, flood, flour, fold, fond, fool, fountain, frog, frontier, fur, garlic, glove, graduate, gram, grape, grateful, gray, guard, gun, hammer, handkerchief, harbor, heel, helicopter, hell, hen, hero, hip, hockey, holiday, hollow, holy, hook, horn, hose, hostile, index, indoor, inferior, informal, inn, instant, instrument, intensive, interval, investigate, irritate, jail, jean, jet, kangaroo, kick, kiss, kite, label, lamb, laundry, lay, leaf, leak, lemon, lettuce, liberty, lick, lid, link, lip, liquid, load, lobby, lodge, loose, lorry, lump, lung, march, mat, melon, mend, merchant, mercy, missile, mix, mosquito, mouse, native, navy, needle, nephew, nest, nod, noodle, noon, odd, onion, opera, opponent, ornament, outline, oval, oven, palace, pale, pan, pants, pardon, parliament, passenger, paste, pastry, pause, pea, peach, peanut, pear, peer, penguin, pepper, persuade, pigeon, pillow, pink, pipe, planet, plug, pocket, pork, port, potato, powder, pray, pretend, profit, proposal, puppy, purple, quarter, queen, random, recipe, rectangle, refrigerator, release, relevant, reliable, reputation, resist, ridiculous, rubber, rude, sandwich, satisfactory, saucer, sausage, scatter, scheme, scissors, sculpture, sentence, shake, shallow, shampoo, shark, shell, shut, shy, silk, sink,

skirt, sleeve, slide, sock, sour, souvenir, spicy, spider, spill, spoil, spoon,
stair, statue, steam, stiff, stove, strawberry, string, superior, supper,
swallow, swear, sympathy, tail, tap, tea, temple, thief, thorough, thread,
tidy, toe, tough, tractor, trash, tray, triangle, trousers, tube, tulip, tunnel,
turtle, tune, twist, underline, underneath, uphold, upright, urgent, vacant,
vain, vase, vehicle, version, vertical, victory, violet, virtue, voyage,
wage, wallet, weapon, wheat, wicked, wing, wipe, wool, wrist, x-ray,
xylophone, yawn, zebra, zero (361 어휘)

부록 2

수능 문제 빈출 어휘 순위표

듣기와 독해 영역에 쓰인 어휘간의 비교

수능 어휘		전체		듣기 영역		독해 영역	
순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1	the	2,209	you	484	the	1,809	
2	to	1,465	the	400	to	1,110	
3	a	1,227	I	386	of	959	
4	of	1,085	to	355	a	956	
5	and	959	a	271	and	824	
6	you	907	in	140	in	675	
7	I	817	is	136	is	483	
8	in	815	and	135	I	431	
9	is	619	it	126	you	423	
10	that	487	of	126	that	402	
11	it	477	have	117	it	351	
12	for	444	do	111	for	335	
13	are	364	for	111	are	286	
14	we	328	this	106	we	264	
15	have	317	your	106	was	233	
16	be	307	I'm	96	they	233	
17	on	291	at	94	on	227	
18	this	290	what	87	be	226	
19	was	280	that	85	as	205	
20	but	268	my	84	have	200	
21	they	257	but	83	he	195	
22	your	253	be	81	with	189	
23	my	238	me	80	but	185	
24	at	237	can	79	not	183	
25	as	235	are	78	this	182	
26	with	232	it's	70	or	169	
27	do	230	no	68	their	167	
28	not	229	don't	64	his	156	
29	can	222	on	64	my	154	
30	he	216	we	64	people	153	
31	what	206	about	63	all	147	
32	one	196	so	62	will	147	

수능 어휘		전체	듣기 영역		독해 영역	
순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어휘	빈도
33	or	190	yes	62	your	147
34	all	188	one	61	by	144
35	will	186	how	58	at	143
36	about	177	that's	58	can	143
37	so	177	there	55	an	140
38	their	169	good	52	one	135
39	an	168	her	52	when	131
40	buy	167	man	52	from	127
41	his	167	well	52	more	122
42	people	164	really	51	do	119
43	when	162	woman	51	what	119
44	from	161	time	49	were	117
45	me	156	oh	47	so	115
46	how	151	see	47	about	114
47	there	147	was	47	if	114
48	if	142	get	46	had	107
49	no	142	not	46	she	99
50	more	141	like	43	has	98

부록 3

학생용 설문지

본 설문지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고등학생들의 영어 어휘 학습방법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떻게 어휘를 학습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어휘 학습 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 중 어휘 학습의 바람직한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는 성적과는 무관함으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사항: 설문 문항을 읽으신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 설문조사 1항: 현재 나의 학습방법에 관한 조사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2) 설문조사 2항: 설문항목에 주어진 방법이 현재 나의 어휘학습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혹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않을 것이다)
-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않을 것이다)
- 3. 보통이다
- 4. 조금 도움이 된다(될 것이다)
- 5. 매우 도움이 된다(될 것이다)

☞ 다음은 모르는 영어 단어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연번	전 략	현재 나의 학습 방법					도움이 되는 정도				
		1	2	3	4	5	1	2	3	4	5
1	품사를 알아본다										
2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분석해 본다										
3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아낸다										
4	본문의 문맥(전후 관계)을 통해 추측한다										
5	영한 사전에서 찾아본다										
6	영영 사전에서 찾아본다										
7	어휘표를 참고한다										
8	우리말 뜻을 교사에게 물어본다										
9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한다										
10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달라고 요청한다										
11	친구에게 뜻을 물어 본다										
12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낸다										
☞ 다음은 한번 접하게 된 단어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13	친구들과 함께 단어를 익히고 연습한다										
14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가진다										
15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운다										
16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본다										
17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짓는다										
18	동의어나 반의어를 연관지어 학습한다										
19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한다										
20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본다										
21	단어의 철자를 익힌다										
22	단어의 발음을 익힌다										
23	단어를 익힐 때 큰소리로 말해본다										
24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킨다										
25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26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힌다										
27	품사를 암기한다										
28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본다										
29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힌다										
30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해본다										
31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외운다										
32	단어를 반복해서 써본다										
33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힌다										
34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풀어본다										
35	녹음테이프를 어휘목록을 듣는다										
36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한다										
37	단어시험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익혀나간다										
38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힌다										

부록 4

교사용 설문지

설문지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휘 교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사가 어떻게 어휘를 가르치는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휘를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휘학습 방법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과정 중 어휘 학습의 바람직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사항: 설문 문항을 읽으신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 설문조사 1항: 현재 나의 교수방법에 관한 조사

- | | |
|--------------|--------------|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별로 그렇지 않다 |
| 3. 보통이다 | 4. 조금 그렇다 |
| 5. 매우 그렇다 | |

2) 설문조사 2항: 설문항목에 주어진 방법이 현재 나의 어휘교수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혹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 | |
|--------------------------|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않을 것이다) |
|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않을 것이다) |
| 3. 보통이다 |
| 4. 조금 도움이 된다(될 것이다) |
| 5. 매우 도움이 된다(될 것이다) |

☞ 다음은 처음 나오는 어휘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연 번	전 략	현재 나의 교수 방법					실제적인 도움의 정도				
		1	2	3	4	5	1	2	3	4	5
1	품사를 알게 한다										
2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알게 한다.										
3	이용 가능한 그림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게 한다										
4	본문의 문맥을 통해 추측하도록 가르친다										
5	영한 사전에서 찾아보게 한다										
6	영영 사전에서 찾아보게 한다										
7	어휘표를 참고하여 알게 한다										
8	교사가 바로 가르쳐 준다										
9	새 단어가 포함된 예문을 써준다										
10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설명해 준다										
11	친구에게 뜻을 물어보아 알아내게 한다										
12	그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알아내게 한다										
☞ 다음은 한 번 가르친 어휘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13	친구들과 함께 익히고 연습하게 한다										
14	원어민과 함께 의사소통 할 기회를 갖도록 돕는다										
15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외우게 한다										
16	단어의 뜻을 영상화시켜 익히도록 가르친다										
17	단어의 뜻을 개인적 경험과 연관지어 익히게 한다										
18	동의어나 반의어를 함께 적어주면서 익히게 한다										
19	의미를 나타낸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가르친다										
20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써 보게 한다										
21	단어의 철자를 익히게 한다										
22	단어의 발음을 익히게 한다										
23	단어를 큰소리로 말해 보게 한다										
24	단어의 형태를 영상화시켜 익히도록 가르친다										
25	단어에 밑줄을 그으며 익히도록 가르친다										
26	접사(접두사, 접미사)와 어근을 익히게 한다										
27	품사를 암기하도록 가르친다										
28	다른 단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표현해 보게 한다										
29	숙어에 포함된 단어를 함께 익히게 한다										
30	단어가 나타내는 뜻을 몸짓으로 표현해 보게 한다										
31	단어를 소리내어 반복하면서 외우게 한다										
32	단어를 반복해서 써보며 익히게 한다										
33	단어장을 만들어 항상 들고 다니며 익히도록 가르친다										
34	교과서에 실려있는 어휘문제를 함께 풀며 익히게 한다										
35	녹음테이프로 어휘목록을 들려주며 익히도록 돕는다										
36	영어매체(TV, 영화, 팝송, 신문 등)를 이용하여 가르친다										
37	단어시험을 통해 재확인하고 익혀나가도록 돕는다										
38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익히도록 가르친다										

감사의 글

지나온 2년 6개월의 교육대학원 기간은 영어교육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소중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밤새워 학과와 논문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께 이 소품을 바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또한 교육자로서 삶의 본이 되시고, 모든 것에서 부족한 저를 위해 인격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자애롭게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주신 존경하는 박매란 교수님과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안수웅, 윤희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대학원 기간동안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해 주신 영어영문학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최홍길, 문성규, 이중희, 윤영민, 김금연 선생님과 설문지 분석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이정분 누님과 조카 김재왕, 이부건, 서상욱, 김태완 후배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수능기출 어휘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과 한글 교정에 도움을 준 정태화, 황경숙 부부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늘 중보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섬겨주신 부산선교 교회 이진화 목사님과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비전 요회 동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새벽마다 기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혜와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강영희 아내와 귀엽고도 든든한 다윗, 다니엘, 외아들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섬겨주신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 마지막으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소품을 바칩니다.

2003년 7월

이 상우 드림